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경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에 관한
디자인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한 순 영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에 관한
디자인 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한 순 영

인 준 서

한순영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복식은 착용자의 신분이나 지위·계급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이전에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성적 제한성을 기본으로 발전하였다. 이 현상은 남성은 남성적이며, 여성은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수천 년 동안 변화하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남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화장을 하였고, TV 및 광고매체를 통해서 여성적 감성문화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성적인 부분에서 제한적 사고를 가졌던 과거와 달리,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수용하는 현대 사회의 다양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문화 속에서 양성성의 수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현대 복식에서 나타나는 양성성은 성적 한계성을 벗어나 여성복에 남성적 이미지를, 남성복에 여성적 이미지를 혼합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복에서의 양성성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남성적 디자인 도입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일반 여성들의 의복에 유행하였다. 반면 남성복에서의 양성성은 이보다 늦은 1960년대 이후 대중문화에 의해 시작되었고 일부 유행 선도적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으나 대중화되지는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젊은 세대의 남성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새롭고 변화하는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것에 익숙해져있다. 그러므로 남성복에서의 양성성은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젊은 세대 남성들

의 수용적 태도는 양성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현대 남성복에서는 이러한 젊은 소비자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표적 사회분석가 매리언 살즈먼(Marian Salzman)의 저서인 “남자의 미래(The Future of Men)”에서는 현대 사회 속 남성의 양성화 경향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남성에서 나타나는 양성성의 변화는 남성의 양성성 문화가 형성되던 1960년대보다 더 빠르고 감성적이며 긍정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새로운 형태의 양성성을 명명한다. 또한 김정연(2007)의 이론에 의하면 현대 남성들은 자기 표현양상이 성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남성의 양성화 흐름은 남성복에 반영되어 새롭고 다양한 스타일의 문화 창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 남성복은 다변화하는 양성적 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남성복 디자인 연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응용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양성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현대 남성복의 양성적 디자인을 응용하고 발전시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론적 연구로서 양성성의 개념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양성성의 특징을 신화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예술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양성성의 디자인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써, 권기영(2002)의 이론에 의하여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분류하여 현대 남성복 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디자인을 조사하였다.

디자인 계획을 위한 조사로서,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양성성의 흐름은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이모 스타일(Emo Style),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 위버섹슈얼(Ueber Sexual), 보더리스(Borderless), 유니섹스(Unisex)의 총 7가지의 양성성

으로 조사되었다. 이 7가지 양성성은 그 특성에 따라 대중문화를 통한 융합적 양성성, 성적 양성성, 무성화 경향의 혼합적 양성성으로 구분되었고, 사회문화적 현상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사진자료를 제시하였다.

작품 제작은 권기영(2002)의 이론에 의하여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를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분류하여 디자인하였다. 불확정성을 위한 디자인 특징은 여성적 혹은 남성적 이미지라는 성적 디자인 개념에서 탈피한 무성화 경향의 이미지를 디자인에 응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통합성을 위한 디자인은 여성적 디테일이 남성복에 첨가되어 여성적 디테일과 남성적 디테일의 별 한 벌 안에서 혼합되어 나타나도록 하였다. 또한 해체성을 위한 디자인은 남성복에 여성적 디테일이 혼합되지만,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혼합되어 여성적 디자인의 디테일이 위치변화 또는 형태변형을 통해 디자인에 응용되었다.

이와 같이 남성복 작품은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여성적 이미지를 조사하여 총 9벌의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정적인 남성복의 품목을 탈피하여, 여성복의 품목을 시도함으로써 디자인 영역을 양성적으로 확장 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 남성복에 차용한 여성적 디자인의 디테일이 남성 소비자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수용되도록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양성성을 상징적 의미로 분류한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분석할 수 있었다.

넷째,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 분류를 통해 남성복에 여성적 디자인 디테일을 접목하여 응용함으로써 심층적인 디자인 연구가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남성복의 양성적 디자인 연구에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남성복 분야가 사회문화적 흐름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디자인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현대 남성복 디

자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양성성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다각적이고 유연한 디자인적 사고 확장의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양성성의 개념	5
2. 양성성의 특징	6
1) 신화적 양성성	6
2) 심리적 양성성	9
3) 사회적 양성성	11
4) 문화·예술적 양성성	12
3. 상징적 의미를 통한 양성성	15
1) 불확정성	16
2) 통합성	19
3) 해체성	23
III. 현대 남성복의 양성성	28
1. 대중문화를 통한 융합적 양성성	28
1)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29
2) 이모스타일(Emo-Style)	31
2. 성적(Sexuality) 양성성	36
1)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	36

2)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	39
3) 위버 섹슈얼(Uber Sexual)	44
3. 무성화 경향의 혼합적 양성성	48
1) 보더리스(Borderless).....	48
2) 유니섹스(Unisex)	51
IV. 현대 남성복의 양성성을 응용한 디자인 제작	57
1. 제작의도	57
2. 작품해설	63
V. 결론	125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상징적 의미 분류를 통한 양성성.....	27
〈표 2〉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	55
〈표 3〉 양성성에 나타난 여성적 이미지의 복식요소.....	56
〈표 4〉 슈트의 작품 디자인 계획	59
〈표 5〉 셔츠의 작품 디자인 계획	60
〈표 6〉 재킷 · 코트의 작품 디자인 계획	61

그림 목 차

〈그림 1〉 Dyonisus	8
〈그림 2〉 Hermaphoroditus	8
〈그림 3〉 남녀추니	9
〈그림 4〉 Hermaphroditos와 Salmacis	9
〈그림 5〉 René Magritte, <i>The Titanic Days</i> (1928)	13
〈그림 6〉 Robert Gerber, <i>Untitled</i> (1990)	13
〈그림 7〉 Theatre A	14
〈그림 8〉 Theatre B	14
〈그림 9〉 Yoji Yamamoto 2008 F/W	17
〈그림 10〉 Dior Homme 2010 F/W	17
〈그림 11〉 Miharayasuhiro 2010 S/S	18
〈그림 12〉 Alexander Mcqueen 2006 S/S	18
〈그림 13〉 Dior Homme 2009 F/W	18
〈그림 14〉 Yoji Yamamoto 2005 F/W	18
〈그림 15〉 Comme des Garçons 2009 S/S	21
〈그림 16〉 Jean Paul Gautier 2010 S/S I	21
〈그림 17〉 Jean Paul Gautier 2010 S/S II	21
〈그림 18〉 John Galliano 2010 S/S	21
〈그림 19〉 Alexander Mcqueen 2009 S/S	22
〈그림 20〉 Dior Homme 2005 F/W	22
〈그림 21〉 Alexander Mcqueen 2006 S/S I	22
〈그림 22〉 Alexander Mcqueen 2006 S/S II	22
〈그림 23〉 Y's for Men 2004 S/S	26
〈그림 24〉 Kris Van Assche 2006 S/S	26
〈그림 25〉 Dior Homme 2006 F/W	26
〈그림 26〉 John Galliano 2009 F/W	26
〈그림 27〉 David Bowie	29
〈그림 28〉 Boy George	29
〈그림 29〉 록 밴드 My Chemical Romance	32

〈그림 30〉 록 밴드 Gold Rush	32
〈그림 31〉 Dior Homme 2009 S/S	35
〈그림 32〉 Dior Homme 2006 S/S	35
〈그림 33〉 David Beckham.....	38
〈그림 34〉 안정환	38
〈그림 35〉 Etro 2006 F/W	39
〈그림 36〉 Gucci 2006 F/W	39
〈그림 37〉 남성 스커트 패션의 등장	41
〈그림 38〉 Bravehearts - Men in Skirts	43
〈그림 39〉 Brave Hearts 전시회	43
〈그림 40〉 가수 김장훈 I	43
〈그림 41〉 가수 김장훈 II	43
〈그림 42〉 디자이너 Marc Jacobs	44
〈그림 43〉 배우 신현준	44
〈그림 44〉 U2의 Bono	45
〈그림 45〉 영화배우 George Clooney	45
〈그림 46〉 영화배우 Ewan McGregor	45
〈그림 47〉 Louis Vuitton 2010 F/W.....	47
〈그림 48〉 Z Zegna 2010 F/W	47
〈그림 49〉 Louis Vuitton 2006 F/W	48
〈그림 50〉 영화 'Annie Hall'(1977)	53
〈그림 51〉 Bultaco Matador 1970's	53
〈그림 52〉 1970년대 데님 진(jeans)	53
〈그림 53〉 최근의 유니섹스 룩(2007)	53
〈그림 54〉 작품 I 의 스타일화	64
〈그림 55〉 작품 I 의 작업지시서	65
〈그림 56〉 작품 I 의 패턴 전개	66
〈그림 57〉 작품 I 의 전면	67
〈그림 58〉 작품 I 의 후면	68
〈그림 59〉 작품 II 의 스타일화	70
〈그림 60〉 작품 II 의 작업지시서	71

〈그림 61〉 작품 II 의 패턴 전개	72
〈그림 62〉 작품 II 의 전면	73
〈그림 63〉 작품 II 의 후면	74
〈그림 64〉 작품 II 의 디테일 - 프린세스 라인	75
〈그림 65〉 작품 II 의 디테일 - 라펠	75
〈그림 66〉 작품 III 의 스타일화	77
〈그림 67〉 작품 III 의 작업지시서	78
〈그림 68〉 작품 III 의 패턴 전개	79
〈그림 69〉 작품 III 의 전면	80
〈그림 70〉 작품 III 의 후면	81
〈그림 71〉 작품 III 의 디테일 - 밑단	82
〈그림 72〉 작품 III 의 디테일 - 앞여밈	82
〈그림 73〉 작품 IV 의 스타일화	84
〈그림 74〉 작품 IV 의 작업지시서	85
〈그림 75〉 작품 IV 의 패턴 전개	86
〈그림 76〉 작품 IV 의 전면	87
〈그림 77〉 작품 IV 의 후면	88
〈그림 78〉 작품 IV 의 디테일 - 소매, 앞여밈	89
〈그림 79〉 작품 IV 의 디테일 - 요크, 어깨	89
〈그림 80〉 작품 V 의 스타일화	91
〈그림 81〉 작품 V 의 작업지시서	92
〈그림 82〉 작품 V 의 패턴 전개	93
〈그림 83〉 작품 V 의 전면	94
〈그림 84〉 작품 V 의 후면	95
〈그림 85〉 작품 V 의 디테일 - 여밈, 리본장식	96
〈그림 86〉 작품 V 의 디테일 - 맞주름, 뒷면 리본	96
〈그림 87〉 작품 VI 의 스타일화	98
〈그림 88〉 작품 VI 의 작업지시서	99
〈그림 89〉 작품 VI 의 패턴 전개	100
〈그림 90〉 작품 VI 의 전면	101
〈그림 91〉 작품 VI 의 후면	102

〈그림 92〉 작품 VI 의 디테일 - 허리	103
〈그림 93〉 작품 VII 의 스타일화.....	105
〈그림 94〉 작품 VII 의 작업지시서	106
〈그림 95〉 작품 VII 의 패턴전개	107
〈그림 96〉 작품 VII 의 전면	108
〈그림 97〉 작품 VII 의 후면	109
〈그림 98〉 작품 VII 의 디테일 - 소매, 칼라	110
〈그림 99〉 작품 VIII 의 스타일화	112
〈그림 100〉 작품 VIII 의 작업지시서	113
〈그림 101〉 작품 VIII 의 패턴 전개	114
〈그림 102〉 작품 VIII 의 전면.....	115
〈그림 103〉 작품 VIII 의 후면.....	116
〈그림 104〉 작품 VIII 의 디테일 - 칼라	117
〈그림 105〉 작품 VIII 의 디테일 - 밑단	117
〈그림 106〉 작품 IX 의 스타일화	119
〈그림 107〉 작품 IX 의 작업지시서	120
〈그림 108〉 작품 IX 의 패턴 전개	121
〈그림 109〉 작품 IX 의 전면	122
〈그림 110〉 작품 IX 의 후면	123
〈그림 111〉 작품 IX 의 디테일 - 어깨 맞추름	124

I. 서론

오늘날 현대 패션은 성적 정체성의 한계를 벗어나 변화해 가고 있다. 남성복은 남성적 이미지의 디자인 연구에 한계를 두지 않고, 여성복 또한 여성적 이미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현대 패션은 의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성적 한계성을 탈피한 포괄적 수용자의 입장에서 양성성을 수용하고 있다. 즉, 현대패션에서 양성적 이미지가 대중화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복에서 나타나는 성적 이미지의 변화 양상은 새로운 복합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문화적 흐름과도 상통한다. 과거 인간의 의복 착용 목적은 단순한 성적 미의 표출로서 극적인 성의 구분을 위한 성적 아름다움의 표현에 있었고, 현대에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성의 포괄적인 수용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현대사회의 양성성은 인간을 생체학적 관점에서의 하나의 성 개념으로 규정짓지 않고, 개인 혹은 사회 안에 양성적 경향이 존재한다는 통합적이고 관념적인 성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¹⁾

이러한 양성성의 현상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별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식은 변화하는 성역할과 사회적 역할에 의해 그 의미가 항상 바뀔 수 있으며, 각 시대의 가치관이 반영된 성 역할에 대한 상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

양성성의 개념은 진화된 고차원적 수용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콜리지(Samuel Taloy Coleridge)는 “위

1) 권기영, “복식에 나타난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 연구”, 복식문화연구, 10(6), 2002, pp. 633-647.

2) 유흥식 · 황선진, “패션잡지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의 사회적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II)”, 복식, 53(5), 2003, pp. 111-124.

대한 정신은 남녀 양성을 겸비하고 있다.”³⁾ 고 하여 특정성이 아닌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적인 시각과 경험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즉, 문학적 측면에서의 양성성은 남성 혹은 여성적 측면 시각을 선택하여 사고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문학적인 다양한 사고의 전개를 위해서는 양성적 사고의 정립을 이루어져야한다고 할 수 있다.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미하이 칩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는 “정신적으로 남녀 양성적인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배로 풍부한 반응의 종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한 종류의 기회에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하였다.⁴⁾ 심리적 측면에서의 양성성은 한쪽 성에 국한되었던 제한된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영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양성성은 단순히 성적 혼돈이라는 부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학문적 관점에서 고정된 성적 영역을 벗어난 성적 개념의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유연적 사고확장으로 보다 진화되고 유기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패션에서 양성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여성복과 달리 남성복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양성성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의 남성들은 과거 권위적인 권력, 계급, 힘의 상징적 이미지만 국한되지 않고, 여성복에서만 나타났던 관능적이고 우아한 아름다움의 미학을 함께 수용하고 있다. 제일기획은 2004년 국내 17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녀 300명을 대상

3) 정부효,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서울: 무한출판사, 2003), p. 51.

4) 다니엘 핑크, 「새로운 미래가 온다 - A Whole New Mind」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7), p. 63.

으로 전화 및 1:1 면접 조사를 통하여, 양성성을 추구하는 남녀의 성격을 조사한 '우리 시대 남녀의 조용한 혁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⁵⁾ 조사를 통해 발표된 양성성의 결과는 조사대상자들 중 양성성을 가진 남성은 66.7%, 여성은 57.3%로 예상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양성성 성향의 비율은 여성보다 약 10% 이상 높아, 여성소비자들에 비해 남성 소비자들의 성향이 변화할 잠재력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패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잠재구매력이 있는 남성소비자들을 남성(ma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맨슈머(man-sumer)'라고 지칭한다.⁶⁾ 이들은 여성처럼 패션에 관심이 많은 구매집단으로, 최근 패션시장에서는 이러한 남성 소비자들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남성 패션에도 여성의 패션에서와 같이 양성적 변화 양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남성들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남성들은 성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이를 반영한 새로운 남성 패션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양성성 개념이 도입된 다양한 패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 패션의 양성적 디자인 흐름을 파악하여, 앞으로 현대 남성복 디자인이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대 남성복은 디자인 측면에서 아직 적극적인 양성성 도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남성들의 사고가 변화하는 관점에서 남성소비자들의 디자인 선택의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넓혀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성복 패션시장은 좀 더 다양한 양성적 디자인을 창출하여 새로운 사고의 젊은

5) 손성태, 「남녀역할 급변 ... 조용한 성혁명 : 예쁜 남 · 강한 녀 '전성시대」, 한국경제, 2004. 12. 27.

6) 이성훈, 「남자가 쇼핑하면 남세우스스럽다? 이젠 남자스럽다!」, 조선일보, 2007. 4. 26.

소비자들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양성적 사고의 확장을 통해 한 층 다양하고 진보된 가치소비문화를 창출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양성성이 나타난 남성패션 모드를 분석하기 위해 단행본, 학위논문, 연속 간행물, 신문기사, 전문패션잡지, 검증된 인터넷 자료를 통해 실증적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남성복 디자인 제작을 하였다.

현대 남성복의 양성화 작품 디자인을 위한 자료 수집은 세계 4대 패션쇼인 뉴욕, 밀라노, 런던, 파리의 2005년 이후의 컬렉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작품은 상징적 의미의 양성성에 근거하여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적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작품 제작은 색상에 의한 양성성을 배제한 디자인 연구로서, 다양한 품목의 남성복을 제작하였다.

작품 제작의 구성은 정장 슈트 2벌, 캐주얼 재킷 3벌, 코트 1벌, 원피스 셔츠 1벌, 셔츠 2벌로 총 9작품을 제작하였으며, 품목의 선정기준은 폭넓은 디자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품목을 균등하게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양성성의 개념

양성성은 생리학적 측면의 양성성과 인간내면의 의식적 측면의 양성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성성이란, 성적 행동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심리학자 프로이드(Freud)의 경우에는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와 헤테로 섹슈얼리티(Heterosexuality)와 같은 생리학적 측면의 양성성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⁷⁾ 또한 의식적인 측면의 양성성은 사회적인 성인 남성적 성향과 여성적 성향에 있어서의 혼재를 의미한다.

양성성에 대한 이론은 산드라 벰(Sandra Bem)이 성 정체감을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양성성의 4가지로 구분하면서 나타냈다.⁸⁾ 벰에 의하면 남성성은 남성적 특성이 높은 경우이며, 여성성은 여성적 특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미분화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모두 낮은 경우를 말하며, 양성성은 두 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모두 공유한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양성성 성향이 강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린다고 하였다.⁹⁾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생리학적 개념의 성(sex)의 이분법적 개념은 우리의 내면적 사고의 영역에서는 바람직한 삶을 추

7) 채수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 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p. 8.

8) 권기영, “패션 잡지 광고에서 보여 지는 성 혼돈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 2004, pp. 100-111.

9) 유흥식, “20세기 후반 여성복에 나타난 양성 이미지에 관한 연구: 잡지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p. 15 .

구를 이룰 수 없게 한다. 즉,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로써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리학적 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고 확장된 사고영역의 확장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양성성에 대한 확장된 사고 영역을 역사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예술적 측면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양성성의 특징

양성성의 특징은 인류문명 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양성성의 경향은 남녀의 구분 없이 다루어지기도 하고, 생리학적 양성성과 사회적 양성성의 특징이 구분되지 않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성의 특징을 사회적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화적 양성성, 심리적 양성성, 사회적 양성성, 문화·예술적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신화적 양성성

양성성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플라톤의 저서 '향연'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⁰⁾ 그는 원래 인간의 성은 지금과 같이 둘이 아닌 남성, 여성, 그리고 이 두 성의 결합체가 존재하여 셋이라고 서술한다.

인류 최초의 종족은 원래 계란 모양의 몸통, 두 개의 얼굴이 달린 하나의 머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네 개씩 달린 팔과 다리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굴러 다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신에 대항하여 반란을 기도하자, 이

10) 플라톤, 「향연: 사랑에 관하여」, 박희영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pp. 82-84.

에 분노한 제우스는 별로 이들의 몸을 둘로 갈라놓는다. 그 후 이들은 제 반쪽을 찾아다니다 발견을 하면, 팔을 돌려 서로 끌어안으려고 하나, 성기가 뒤에 붙어 있어 교합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를 가엽게 여긴 제우스는 이들의 성기를 앞으로 옮겨주자, 비로소 남녀의 교접을 통한 생식이 가능해지고 동성 간에는 적어도 성적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¹¹⁾

이처럼 대부분의 신화에서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서로 대립되면서도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융화될 수 없는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함께 포함하는 중간적 존재가 있어 상호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¹²⁾ 그리스 신화에는 중성으로서 양성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남성 신인 디오니소스(Dionysus, 그림 1)는 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보다 초월적 존재인 신들이 양성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은 양성성이 완전성 또는 전지전능함과도 유사하다는 점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애매모호한 중간에 걸쳐진 사회적 범주는 신성함과 관련있다고 주장¹³⁾하면서 그 예로 고대 그리스에서 남녀 양성을 신으로 숭배한 사실과 신화에서 양성기를 소유한 신으로 <그림 2>에서와 같이 반남반녀(Hermaphrodite,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결합)상을 들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에 따르면, 헤르마프로디토스(Hermaphroditos, 그림 4)가 할리카르나소스 부근의 호수를 지나가다, 그 호수에 살고 있는 살마키스(Salmacis)라는 요정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게 된다. 그러나, 헤르마프로디토스는 그녀의 유혹을

11) 미와 교고 외, 「성의 미학」 (서울: 세종서적, 2006), p. 281.

12) 권기영, op. cit., pp. 633-647.

13) 이선영, 「조형적 성 - 양성 이미지」, 미술세계, 1999년 10월, p. 124.

거절하고, 실망한 살마키스는 신에게 헤르마프로디토스와 영원히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살마키스는 마침 호수에서 목욕을 하는 헤르마프로디토스에게 뛰어들어 그를 껴안았고, 그녀의 기도처럼 요정과 소년의 몸은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헤르마프로디토스는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에게 그 호수에 뛰어든 사람은 모두 자신과 똑같은 남녀 한 몸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고, 이 후 헤르마프로디토스는 '남녀추니(hermaphrodite,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를 의미하게 되었다. 양성인(hermaphrodite)은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욕구와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¹⁴⁾ 이들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을 초월한 합일을 의미한다. 즉, 상반된 두 속성의 차이를 없애고 단편들을 병합하는 것을 말하며, 둘로 나뉜 성을 결합하고 싶은 욕망이 자웅 동체상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추니(그림 3)는 원초의 완전성, 완전체, 반대물의 합일, 무제한적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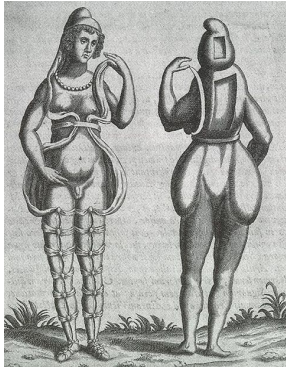


〈그림 1〉 Dyonisus
(출처: www.mythencyclopedia.com)



〈그림 2〉 Hermaphroditus
(출처: http://paper.cyworld.com)

14) 이명옥, 「꽃미남과 여전사 I : 21세기 남과 여」 (서울: 노마드 북스, 2006), pp. 31-33.



〈그림 3〉 남녀추니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



〈그림 4〉 Hermaohroditos와 Salmacis
(출처: www.symbolian.com)

자율성, 되찾은 낙원, 남녀의 원초적 힘이 재결합됨을 의미하며, 남녀의 모습, 또는 왕의 얼굴과 여왕의 얼굴이 같이 붙은 두 얼굴의 모습, 붉은 색의 남편과 흰색의 아내 등으로 상징된다. 결과적으로 신화에 나오는 양성성의 의미는 신체적 양성성을 통해 좀 더 완전한 결합체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이상향을 나타낸다.

2) 심리적 양성성

과거에는 인간을 생리학적 개념에서의 성(sex)개념으로 제한성을 두어, 남성은 여성성에 접근하지 않았고, 여성 또한 남성성에 접근하는 것을 금기시 해왔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생리학적 개념에서 접근하지 않고, 인간 개개인의 내면을 통한 양성성 이론 안에서 탐구하기 시작하였다.¹⁵⁾

칼 융(Carl G. Jung)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학설에서 기원한 양성애의 개념과는

15) 정재형, “영화의 양성성(兩性性)개념 연구 :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 p. 12.

전혀 다른 입장에서 양성심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심리학자이다. 프로이트의 양성애는 전 오이디푸스기에 발생하는 심리로서 남아와 여아는 어머니에게 둘 다 사랑을 느끼고 아직 오이디푸스적인 갈등을 겪기 이전의 순수한 애정관계에서 출발한 고착성애를 말한다. 반면 융의 양성성 개념은 개인 무의식의 차원을 포함한 더욱 심층적인 집단 무의식의 원형개념으로서 남성속의 여성성과 여성속의 남성성이 공존하는 무의식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¹⁶⁾ 융은 남성 속에 있는 아니마(anima)라는 여성성이 사회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남성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융에 따르면 여성의 인격에는 남성성을 지니는 하위 인격(아니무스:animus)이 있고, 남성의 인격에는 여성성을 지니는 하위 인격(아니마)이 있다. 그는 모든 남성은 자기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겸하고 있으며, 남성성을 유지하는 한편 자신의 여성성 과도 마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인간이 본래 양성적 원형을 가지고 있으나 동성애적 성향으로 가는 원인은 무의식의 자아와 반대적인 성향이 밖으로 투사되지 못하고 안으로 투사될 때 표면적인 페르조나(Persona:자아의 편에 서서 외부세계와 '협상하는' 의식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행동할 때 일종의 가면으로 지칭한다. 사회적 계층, 직업, 문화, 국적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것의 조절능력에 따라 사회적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와 내면적인 무의식이 같은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다시 말해 남성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사람이 내면적 아니마를 밖으로 투사하지 못하고 내면에 투사하면 자기가 곧 아니마 투사와 동일하게 되어 여성적 성향을 갖게 되고, 여성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경우는 반대로 남성적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¹⁹⁾

16) Ibid., p. 13.

17) Jack Balswick, 「기रो에 선 남성」, 송경국·권영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92), p. 25.

18) 정재형, op. cit., p. 14.

융의 투사이론은 자아와 무의식의 내적 통합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적 과정이란 자아(의식)와 아니마(무의식), 여성은 자아(의식)와 아니무스(무의식)를 통합하는 내적과정이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남성과 여성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인간이 어느 한 쪽이 결여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을 통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가 되고자한다는 필연적 과정을 의미한다.

러시아 철학자 니콜라스 버댜에프(Nicolas Berdyaev)는 인간은 단일성이면서 동시에 양성애적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남성, 또는 여성의 원리를 결합시킨다고 보고 있다. 여성의 원리가 완전히 부재한 남성은 추상적 존재일 뿐이며, 우주적 요소에 서는 완전히 분리된다. 또한, 남성의 원리가 완전히 부재한 여성은 개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구성하는 두 원리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원리의 결합은 양성성 안에서 모든 남성과 여성을 현실화시키며, 남성과 여성 두 본성 사이의 상호공동체 형성을 통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20) 즉, 심리적 양성성은 인간의 양성성을 생리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 속에 형성된 무의식적 양성성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은 의식 속에 양성성이 내재되어있다고 설명한다.

3) 사회적 양성성

일만 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의 농경생활은 강한 근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월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남성들은 사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²¹⁾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남성의 신체적 우월성과 강인한 육체적 힘은 더 이상

19) 이부영, 「분석심리학: C. G. Jung 의 심성론」 (서울: 일조각, 1998), p. 91.

20) Nicolas Berdyaev, *The Destiny of Man*,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0), pp. 61-62, Sanford, p. 6에서 재인용.

21) 최재천,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서울: 궁리출판, 2003), pp. 214-215.

장점으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최첨단 무기와 기계의 개발은 더 이상 육체적 강인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직장사회 내에서는 힘이나 권력보다는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섬세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현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²²⁾ 반면 여성은 특유의 유전적 기질, 즉 어머니라는 양육자와의 대인관계를 통해 쌓아온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인해 현대 생활에 적합한 능력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남성이 바깥일을 하는 동안 여성은 아이들을 돌보며 자기가 할 일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법을 터득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의사소통 훈련을 하였다.²³⁾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성적 특성이 남성의 성적 특성에 비해 현대사회에 적합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성도 여성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사회 집단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양상은 단순한 성역할의 변화 뿐 만 아니라, 남성은 여성적 특질을 여성은 남성적 특질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게 하였다. 단순히 남성은 남성적 특질을 여성은 여성적 특질만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과 다른 성의 특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남성들은 여성들처럼 화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의 화장의 개념을 자기관리, 사회경쟁력의 일부로 여기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전문병원을 통한 관리 및 치료도 일반화되었다.

22) 매리언 살즈먼, 「남자의 미래」, 이현주 역 (서울: 김영사, 2006), p. 30.

23) Ibid., p. 31.

4) 문화 · 예술적 양성성

문화 · 예술적 분야에서의 양성성은 새로운 관념을 탐구하여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들은 인간 내면의 양성성을 자유로운 사고의 확장을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예술에서의 양성성은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 작품 〈그림 5〉에서도 나타난다. 여성의 신체 속에서 내재해 있는 남성이 여성을 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간 속에 남녀 성의 혼재, 즉 인간내면의 양성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화폭을 통하여 표현하였다.²⁴⁾ 나체의 한 여인은 그녀의 몸에 침입한 듯 보이는 옷을 착용한 한 남성의 침입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로버트 거버(Robert Gerber)의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거버의 1990년도 작품인 〈그림 6〉에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가슴부위 토르소를 작품화하여 인간내면의 양성성을 표현



〈그림 5〉 René Magritte, *The Titanic Days*(1928)
(출처:www.artknowledgenews.com)



〈그림 6〉 Robert Gober, *Untitled*(1990)
(출처:www.lacma.org)

24) 권기영, op. cit., pp. 633-647.

하였다. 인체부위에서 가슴부위는 성적이미지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작가는 이러한 신체의 일부분을 작품화하여 왼쪽가슴은 남성을 표현하고, 오른쪽 가슴은 여성을 표현하여 인간의 성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5)

일본 행위예술가 모리무라 야스마사(Morimura Yasmasa:1951-현재)는 남성과 여성, 서양과 동양, 사진과 회화 등 이분법적으로 정의된 상식의 틀을 파괴한다. 즉, 몸은 남성이면서 여성적이고 동양적이면서 서양적이다. 동시에 회화적이면서, 사진이다. 거기다가 그의 작업을 보면, 웃게 되는 희극적인 요소가 첨가되면서 대중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 7>과 <그림 8>은 마네의 작품인 ‘폴리 베르제르의 주점(Full Enlargement)’을 차용한 작품으로 옷을 입고 있는 여성과 옷을 입지 않은 남성의 모습이 확연히 나타난다.

<그림 7>의 여성의 가슴을 가진 팔은 <그림 8>의 남성의 팔이며, 남성의 성기를



<그림 7> Theatre A
(출처: www.lalouver.com)



<그림 8> Theatre B
(출처: www.lalouver.com)

25) Website of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www.lacma.org/art/magritteindex.aspx, 자료검색일 2010. 4. 20.

가리기위해 꽃병을 놓았다. 원작에서의 화려한 도시 속 우울한 표정의 여성의 모습과 달리 작가가 여성을 의도적으로 패러디하는 과정 안에서 유희적 특성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리무라는 영화의 패러디를 통해 현대 대중문화 속 복제와 차용을 통하여 자신의 불안한 성정체성을 해체시켜 표출한다.²⁶⁾ 그의 이러한 작업들은 셀프 포트레이트(self-portrait)로 진행되며, 대중문화 속에서 변화해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더욱 다양해지고, 다의적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해 감을 나타낸다. 즉, 자신의 남성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여성성이 공존하는 양성적 상태로 나타낸다.

2. 상징적 의미를 통한 양성성

20세기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철학사조들을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²⁷⁾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모든 철학적, 정신 심리학적, 사회적 개념 및 관습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왔던 고정관념들과 선형적 틀을 와해 혹은 해체하고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 신체, 차별성, 시간보다는 공간적, 지역적 가변성과 현재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대두되고 객체가 주체를 대체하는 자아 분열적 징후가 나타난다.²⁸⁾

한 편 해체주의는 전통이나 말 중심과 같은 외부적 파괴현상이 아닌 내부적으로 구축된 것에 대한 근본적 해체를 말하는 것으로 남녀 성의 범주를 해체시켜 제 3의 성으로 제시한다.²⁹⁾

26) 이영욱, 카이스트 사진수업, <http://cafe.naver.com/kaistphoto.cafe>, 자료검색일 2007. 8. 21.

27) 권기영, op. cit., pp. 633-647.

28) 송미숙,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의 문화현상」, 미술세계, 1994년 1월, p. 155.

29) 김성근, 「탈구조주의의 이해」(서울: 민음사, 1988), p. 22.

이러한 철학사조들은 현대패션의 양성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본 연구에서는 양성성을 상징적 의미로 나누기 위해 이들 철학사조와 권기영(2002)의 연구를 기초로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나누어 디자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1) 불확정성

인간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되는 성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절대 불변하는 선택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관념은 사회적 이해와 수용이 함께 일어나면서, 과거 절대불변이라고 여겨졌던 성적 정체성의 변화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불확정성이란 의미의 혼동이나 모호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불확정적이고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으므로 불완전하게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³⁰⁾

이러한 불확정성은 인간의 정체성과 심리적인 내적 상태, 그리고 상호보완적 포용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이전의 모순과 갈등을 새로운 차원의 조화로 이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주종관계에 있었던 남녀의 성 역시 대립적 위치에서 탈피하여 상호보완적 존재로서 성의 혼합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양성성에 있어서 불확정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³¹⁾

현대 패션에서의 양성성은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남·녀 양성이라는 대립된 각각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나면서 어느 한 쪽 성에도 치우치지 않고 제한적 사고의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디자인의

30) 조말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pp. 10-11.

31) 권기영, op. cit., pp. 633-647.



〈그림 9〉 Yoji Yamamoto 2008 F/W
(출처:www.style.com)



〈그림 10〉 Dior Homme 2010 F/W
(출처:Gap Men Press, vol.21 - 2010-2011
Autumn & Winter, p.53)

확장이 성립된다.

2008년 F/W 요지야마모토의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최근 〈그림 9〉와 같이 직접적인 여성적 이미지가 강한 남성복 디자인 성향에 대한 반기로 좀 더 남성적 이미지를 가미한 남성복을 감성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남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군복을 주제하였으나, 부드럽고 풍성한 드레이핑을 과감하게 결합시킨 컬렉션을 완성하였다.

32) 그러나 전체적인 느낌은 어느 한 쪽 성에도 치우치지 않은 느낌의 컬렉션을 완성하였으며, 군복을 주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복에서 나오는 일반적 남성적 디테일은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않은 성적이미지를 초월한 불확정된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32) Vogue Menswear Collection- Yoji Yamamoto, www.style.com, 자료검색일 2010. 5. 1.



〈그림 11〉 Miharayasuhiro 2010 S/S
(출처: <http://nymag.com>)



〈그림 12〉 Alexander Mcqueen 2006 S/S
(출처: <http://nymag.com>)



〈그림 13〉 Dior Homme 2009 F/W
(출처: <http://nymag.com>)



〈그림 14〉 Yoji Yamamoto 2005 F/W
(출처: Gap Men's Collection-paris편 p.71)

〈그림 10〉과 〈그림 13〉의 디오르 옴므(Dior Homme)의 컬렉션은 성적으로 성

적 이미지나 남성적 이미지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없는 불확정된 양식의 스타일을 창조해내서, 좀 더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남성 패션 스타일로 완성하였다. <그림 11>의 미하라야스히로(Miharayasuhiro)의 어린왕자에서 영감을 얻은 2010년 컬렉션³³⁾이며, 아직 성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미소년의 이미지는 불확정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2>와 <그림 14>의 경우는 남성적 이미지도 여성적 이미지도 아니지만, 유아한 느낌의 실루엣을 가미한 남성복으로 남성복의 고정된 실루엣의 틀을 벗어났다.

이와 같이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불확정성 이미지는 여성복이나 남성복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이미지를 중성화시킨 무성화의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통합성

통합성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양성을 하나의 합쳐진 완전한 존재로서 제시한 것으로, 다원화되는 시대의 포스트모던 현상과도 일치한다.³⁴⁾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예술로 전환함으로써,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규범에 의해 구분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개념을 탈피하여 인간이라는 통합된 시각에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³⁵⁾

양성성 이론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한 개인 내에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과거의 입장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성과 남성성의 개념은 일직선상의 양극에 존재하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 차원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다.³⁶⁾ 따라서 한 개인 내에 여성적 특징과 남성적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심리적 양성성을 지닌 사람은 성 정체감이 고정된 사람과 비교하여

33) Vogue, www.style.com. 자료검색일 2010. 5. 1.

34) 권기영, op. cit., pp.633-647.

35) Ibid.

36) Ibid.

더 유연한 성도식(gender scheme)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고정된 개념이 아닌 있는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³⁷⁾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분업화되고 다양화되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단순히 성적 분업화만을 강요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양성성을 찾아내어 보다 수용적 관점에서 개인을 받아들여 발전시키는 사회적 시각이 요구된다. 이는 양성성이 지닌 통합적 사고를 보여준다.

현대 남성복 패션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별개의 성으로 인정하면서 통합적 이미지로 표현한다. 콤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은 통합성 디자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서, 여성이 입는 옷과 남성이 입는 옷의 구별을 넘어 하나의 옷 안에 개인이 가진 양성적 특징을 표현하였다(그림 15).³⁸⁾ 또한 최근 남성복에서는 여성적 이미지의 프릴과 레이스가 과감하게 적용된 블라우스를 표현하거나(그림 20), 남성적 슈트에 뷔스티에(bustier)를 접목하기도 하며(그림 16), (그림 18), 여성적 신체미를 강조하는 아워 글래스(hour-glass) 라인을 과장되게 응용한 재킷(그림 17)을 선보이기도 한다. <그림 21>의 경우, 여성적 느낌의 비치는 쉬폰이 모자에서부터 왼쪽 슬리브에 이르기까지 프릴로 장식된 여성적 이미지를 적용하였다. 또한, <그림 22>의 경우 슬릿장식의 소매부분에 퍼프가 들어감으로써 여성적 느낌의 소매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양성성에서 나타난 통합성의 개념은 과거 제한되고 고정된 성적 의식, 즉 정형화된 남성과 여성적 이미지들이 의식적 사고의 틀을 파괴하면서, 의복의 개념을 제한 없이 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7) Ibid.

38) Ibid.



〈그림 15〉 Comme des Garçons 2009 S/S
(출처: www.gq.com)



〈그림 16〉 Jean Paul Gautier 2010 S/S I
(출처: <http://nymag.com>)



〈그림 17〉 Jean Paul Gautier 2010
S/S II
(출처 : <http://nymag.com>)



〈그림 18〉 John Galliano 2010 S/S
(출처 : <http://nymag.com>)



〈그림 19〉 Alexander Mcqueen 2009 S/S
 (출처 : <http://nymag.com>)



〈그림 20〉 Dior Homme 2005 F/W
 (출처:Gap Men's Collection- paris편 p.13)



〈그림 21〉 Alexander Mcqueen 2006
 S/S I
 (출처:<http://nymag.com>)



〈그림 22〉 Alexander Mcqueen 2006
 S/S II
 (출처: www.style.com)

3) 해체성

해체성은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 철학사조에 근간을 두고 있다. 데리다는 1966년 10월 국제 심포지움에서 '인문학의 예술 행위에 있어 구조와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 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해체주의'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였다.³⁹⁾ 그의 해체는 기존의 질서체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절대적 진리로 인정되었던 언어적 맥락을 파헤치고 그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여 해체를 통한 재조합을 시도하였다.⁴⁰⁾ 그의 철학사조는 전통이나 말 중심 밖에서의 파괴가 아닌, 내부에서 그것들이 구축해 놓은 것들을 근본부터 해체하자는 것이다.⁴¹⁾ 즉, '내부로부터'의 해체이며, 그가 해체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닫힌 체계 내에서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열린 사고'와 '열린 사회' 라고 할 수 있다.⁴²⁾

이 철학사조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범주까지 해체시켜 제3의 성을 제시하는 해체주의적 양상으로⁴³⁾까지 발전한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개인 속에 두 가지 성이 공존하며,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적 대상들이 공존한다고 하였다. 이들 두 성 사이에는 공통적인 것이 없는 동시에 횡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한 주체 속에는 하나의 성이 아닌 n개의 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⁴⁴⁾ 이 해체주의는 남녀의 이분법적 구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점

39) 김성근, op.cit., p. 18.

40) 윤재은, "해체주의건축의 공간 철학적 의미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7), p. 35.

41) 한경예, "ISSEY MIYAKE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4), p. 8.

42) 김성근, op. cit., p. 22.

43) 이정후 · 양숙희, "크로스 드레싱에 관한 연구", 복식, 35, 1997, pp. 111-134.

44) 이선영, op. cit., p. 130.

에서 호소력을 가지며,⁴⁵⁾ 해체성이 양성성의 중요한 특징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체주의는 20세기 말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억압된 것들의 복귀현상’, ‘탈 중심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받고 소외되어 왔던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들 양식 요소를 수용하여 새로운 미를 창조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획일적 미의식에서의 전환을 마련하였다. 이에 해체주의는 사상적인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분야에서도 탈 중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⁶⁾

해체주의와 패션과의 관계에서는 옷의 봉제선이 떨어져 나가고 소매가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자크 데리다가 주장하는 구조적인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을 거부하여, 의복과 관계된 모든 것들 자체가 부서지고 다시 상상되고 실험되는 것을 말한다. 패션계에서 본격적인 해체주의의 시작은 1989년 파리컬렉션에서 선보인 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la)의 S/S 컬렉션에서였다.⁴⁷⁾

이처럼 패션분야에 철학사조의 영향이 도입되면서 디자인적 측면에 있어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해체주의적 영향에 의해 기존의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제한적 디자인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패션에서의 해체는 고뇌하고 치환된 듯한 개념으로 파격성을 보인다. 이들 옷은 새로운 미래의 패션을 창조하기 위해 패션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분해하여 그 제작 및 통합과정, 각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그 자체를 파괴하고 해체한다. 이를 통한 관습에 의해 하나로 통합, 완성된 옷을 분리하며 편견이 없는 변화된 현실에 근거해 다시 시작함을 의미⁴⁸⁾하는 것이다.

45) 김홍희,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월간미술, 1994년 8월, p. 165.

46) 정세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p. 35.

47) 한경예, op. cit., p. 14.

해체주의에서 탈피의 개념을 갖는 'Dis·De'의 개념은 복식에서 탈중심, 탈구성, 위치 전환으로서의 전위, 일정규칙이나 룰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를 제시한다(그림 23).⁴⁹⁾ 즉, 구성선에서 떨어져 나가 새로운 형을 이루거나 아예 조형요소를 무시하는 경우와 기존의 개념을 해체시키는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4>의 경우, 기존의 재킷이 상의 품목이라는 개념을 해체시켜, 재킷을 바지로 착용시킨 디자인이며, <그림 25>는 셔츠의 앞 여밈의 덧단이 그 기능적 측면을 탈피하여, 타이의 장식적 개념으로 여러 겹의 리본 장식 기능을 한다. <그림 26>의 재킷의 경우 일반적 라펠 위치의 변동으로 프린세스 라인과 혼합된 미적인 기능을 한다. 즉, 현대 남성복식의 양성성에서 해체적 관점은 디자인적 요소의 기능적 변화, 개념적 탈피, 무질서의 허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대 남성복에서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 분류는 <표 1>과 같다.

48) Deyan Sndjio, *Rei Kawakubo and Comme des Garçons* (New York: Rizzoli, 1990), p. 10.

49) 한경예, op.cit., p. 40.



〈그림 23〉 Y's for Men 2004 S/S
(출처 : www.leadfashion.com)



〈그림 24〉 Kris Van Assche 2006 S/S
(출처 : www.vogue.co.uk)






〈그림 25〉 Dior Homme 2006 F/W
(출처 : www.gq.com)



〈그림 26〉 John Galliano 2009 F/W
(출처 : www.gq.com)

〈 표 1 〉 상징적 의미 분류를 통한 양성성

분류 내용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
정의	의미의 혼동, 모호함	하나로 합쳐진 완전한 존재	일정규칙이나 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질서
특성	어느 한쪽 성에도 치우치지 않음, 무성화경향과 유사.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별개의 성으로 인정하면서 통합함.	고뇌하고 치환된 듯한 개념의 파격성, 완성된 것을 파괴하고 해체함.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 미하라 야스히로 레이 카와쿠보	장 폴 고티에 콤브데 가르송 알렉산더 맥퀸	마틴 마지엘라 존 갈리아노 이세이 미야케
예			

III. 현대 남성복의 양성성(Bisexuality)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복 양성성은 다양한 형태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양성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남성복의 양성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총 9개의 양성성을 분석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그 특징에 따라 대중문화를 통한 융합적 양성성, 성적 양성성, 무성화 경향의 혼합적 양성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양성성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1. 대중문화를 통한 융합적 양성성

현대 남성복의 다양한 양성성 중에서 앤드로지너스와 이모 스타일은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생성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중문화를 통한 양성성으로 명명하여 분석하였다.

1)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앤드로지니(Androgyny)는 두 가지 성적 속성을 지닌 신화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어 앙드레(Andre)의 남성적 의미와 진(gyn)의 여성적 의미를 합쳐서 앤드로지니라는 단어를 만들었고,⁵⁰⁾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소유한 것을 앤드로지니라고 한다.⁵¹⁾

이것은 원초의 완전성, 반대물의 합일, 무제한적 상태, 자율성, 되찾은 낙원, 남성

50) 줄리아 우드, 「젠더에 갇힌 삶」, 한희정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pp. 35-36.

51) C. M.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2nd ed. (New York: Fairchild Books, 1998), p. 343.

의 원초적 힘이 재결합됨을 상징한다. 양성구류, 자웅동체를 뜻하는 앤드로지니는 남녀 양성이 조화되고 융합된 인간형으로 기존의 성 개념을 초월한 제 3의 성이라고 한다.⁵²⁾ 이러한 앤드로지너스는 생리학적 양성성과 사회적 양성성으로 나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의 앤드로지너스는 육체적, 성적 관점이 아닌, 사회 문화적 의미에서 사용되며 남녀의 심리적 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⁵³⁾

패션에서 앤드로지너스라는 용어의 출현은 19세기 로맨틱 시대의 문학과 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앤드로진이란 단어가 잘못되어 몇 부러 옷을 입은 무능력한 젊은 남자 또는 보이시한 외관을 가진 여자들에게 적용되었다.”라고 하였다.⁵⁴⁾

1980년대 남성복은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eous look)의 유행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되었다. 앤드로지너스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되는 자유로운 감성으로, 자신의 성적 특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남성적인 옷차림으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지향하거나 남성이 여성적인 옷차림으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지향하며 자유롭게 양성을 융합하는 표현방식을 말한다.⁵⁵⁾ 이러한 경향은 무성화 경향의 특성을 지닌 유니섹스와 젠더리스와는 양성적 경향에서 상통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전유물로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복식을 서로 교류하여 착용함으로써 유니섹스와 차별된다.⁵⁶⁾

다시 말해 앤드로지너스 현상은 패션에 있어서 육체적 생리학적 성의 결합이 아닌 정신적인 두 성의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고정관념을 초월하여 상대성의 복식적 특성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양성의 특성을

52) 권기영, op. cit., pp. 633-647.

53)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9), p. 186.

54) June Singer, *Androgyny: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Oxford, England: Anchor, 1976), p. 32.

55) 송명진,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정체성의 표현양상”, *한국의류학회지*, 25(2), 2001, pp. 327-338.

56) 김경옥 · 금기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 1998, pp. 239-262.

자유롭게 혼합하는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앤드로지너스의 특징은 양성성의 분류에서 통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뉴 웨이브패션이 주류를 이루면서 대중음악인 록(rock)과 함께 유행하게 된다.⁵⁷⁾ 조명에 따른 반사를 효과를 극대화하기



〈그림 27〉 David Bowie
(출처: theblogpound.wordpress.com)



〈그림 28〉 Boy George
(출처: www.undercover.com.au)

위해 화려한 장식을 부착하여 그들의 음악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데 사용하였다.

앤드로지너스의 영향을 받은 뮤지션들은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그림 27), 엘튼 존(Elton John), 버디 홀리(Buddy Holly), 지미 헨드릭스(Jimmy Hendrix), 보이조지(Boy George, 그림 28) 등이 있다.⁵⁸⁾

앤드로지너스 룩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뉴 웨이브패션이 주류를 이루면서 대중음악인 록(rock)과 함께 유행하였다.⁵⁹⁾ 〈그림 27〉과 같이 가수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의 앤드로지너스 패션은 퍼포먼스 아티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⁶⁰⁾ 무대

57) 박수진, “앤드로지너스 룩의 색채 특성 - 1990년대 후반 컬렉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p. 12.

58) 서은희, “남성 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4), p. 50.

59) 박수진, op. cit., p. 12.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드레스를 착용하였고, 짙은 색채의 메이크업과 여성적인 의상, 조명 속에서 반짝거리는 화려한 귀걸이와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분법적 논리를 뛰어 넘어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을 의미하고 있다.⁶¹⁾ 이는 자신이 어떠한 성 정체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성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성 정체성에 대한 사고의 자유, 해방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970~80년대 이러한 경향은 남성도 여성복을 착용할 수 있음을 가지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은 더욱 남성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남성은 여성적인 패션의 요소들을 과감히 차용하였다. 대중 음악가들은 이러한 패션의 도입에서 오는 앤드로지너스의 부자연스러운 조화를 극적인 미로 표현하여 대중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리는데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패션에서의 앤드로지너스는 단순히 두 성을 혼합하여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 변형, 왜곡 등을 통해 창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의식적인 변화가 극대화된 표현을 시각화한 것을 의미한다.⁶²⁾ 즉, 20세기 후반의 패션에서는 남성, 여성의 양분화가 아닌, 각각의 요소들이 반대의 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적인 특징을 혼합하고, 성적 제한성을 가진 기존의 패션관념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앤드로지너스 룩은 자아정체성에 대한 재규정과 과거 엄격하게 구별되어 온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경계가 와해되어 성적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현상과도 상통하여, 결과적으로 앤드로지너스를 양성성 개념의 상징적 의미의

61) 최정아, Luxury, www.design.co.kr, 2009년 6월, 자료검색일 2010. 3. 9.

61) 김이은,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p. 94.

62) 박수진, op. cit., p. 10.

관점으로 분류하면, 통합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이모 스타일(Emo-Style)

이모(emo)는 “emotional”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감성을 표현한 단어이다. 이모의 뜻은 감정이 ‘솔직하고 민감하면서도 소극적이고 마음이 슬프고 침울하고 조용하다’라고 설명한다.⁶³⁾ 이모는 고딕(gothic)패션 및 하위문화와 펑크(punk)패션 및 하위문화에 근원을 둔 패션 스타일로 지역과 접근방법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특정 사상, 음악, 패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⁶⁴⁾

‘이모 보이(emo boy)’란 원래 ‘이모 스타일(emo style)’이란 하드코어 펑크 락계통의 음악 장르를 일컫는 말⁶⁵⁾인 이모(emo)가 음악에서 패션으로 진화되어 이모 스타일을 즐기는 젊은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모(emo) 또는 이모코어(emo-core)라고 불리는 음악에서의 이모는 일반적으로 감정적인(emotional)인 가사나 감정적 효과를 토대로 하는 락(rock) 음악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모인(emo person)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세대들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민감하고 내성적이고 가슴이 아프고 어둡고 조용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처럼 이모의 핵심 가치들은 우울함,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 무엇이든 한 번 믿으면 깊게 믿는 것, 불안정함, 비활동성 등을 말한다.⁶⁶⁾

이모인들은 스스로를 신세대 고스(goth: gothics를 요약한 단어)와 비슷하게 생

63)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Emo>, 자료검색일 2010. 4. 10.

64) 박주희 · 하지수, “한국과 미국의 Emo Fashion Style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8(2), 2008, pp. 48-61.

65) 김정연,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 특성”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p. 34.

66) L. Simon and T. Kelly, *Everybody Hurts: An Essential Guide to Emo Cultur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7), pp. 2-4.

각하며, 스타일과 분위기도 펑크나 고스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자해(自害)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랑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대 이모인들은 emo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손목에 난 상처에 대해 논하며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돋보이게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한다.⁶⁷⁾



〈그림 29〉 록 밴드 My Chemical Romance
(출처: www.idancerecords.com)



〈그림 30〉 록 밴드 Gold Rush
(출처: www.vizento.co.kr)

이모인들은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문화를 거부하며, 여자들 중에는 이러한 이모인들이 성적인 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고,⁶⁸⁾ 이들의 중성적이고 여성적 이미지 때문에 동성애자로 오해받기도 한다.

이모스타일(emo-style)을 컬러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검정색으로 요약하여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검정은 젊은 세대의 이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이기도 하다. 이모 스타일은 각이 있고 윤기가 넘치는 헤어스타일링, 짙은 아이라이너, 마른 몸매를 더 강조하는 매우 타이트한 옷, 더러운 의복 스타일이라고 한다.⁶⁹⁾ 옷만큼 중요한 것

67) www.urbandictionary.com, 자료검색일 2010. 4. 26.

68) Ibid.

69) The Idiot Behind the Iron Mask, www.wanzafran.com, 자료검색일 2010. 4. 22.

이 마른 체형이며, 이러한 체형은 우울하고 슬프고 굶주린 듯한 이미지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⁷⁰⁾

미국의 이모 뮤지션은 마이 케미컬 로맨스(My Chemical Romance, 그림 29), 패닉 앳 더 디스코(Panic! at the Disco), 테이킹 백 선데이(Taking Back Sunday), 폴 아웃보이(Fallout Boy) 등이 있으며, 한국의 이모 뮤지션으로는 버미트랩(VermiTrap), 옐로우 푸퍼(Yellow Puffer), 로드(Road), 골드 러쉬(Goldrush, 그림 30) 등이 있다.⁷¹⁾

한국과 미국의 이모 패션문화의 공통점은 모두 슬림한 실루엣, 스키니 진과 티셔츠, 스니커즈, 검정색 선호, 징 박힌 벨트와 빨데 안경 등을 선호한다는 것이다.⁷²⁾ 그러나 문화적 영향의 차이에서 오는 패션에서의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미국의 이모 패션은 핑크패션과 같은 하위 문화적 성향으로 우울한 반사회적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며, 한국의 이모패션은 미국의 이모패션에 비해 덜 우울하고 순화된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짙은 아이라이너 화장의 경우 퇴폐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미지가 강하여 미국 이모인들은 선호하지만, 한국 이모인들은 선호하지 않는다.⁷³⁾

이모인들은 외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가꾸고, 이에 대해 많은 노력을 투자 한다는 점에서 메트로 섹슈얼이나 크로스 섹슈얼과 유사하지만,⁷⁴⁾ 메트로 섹슈얼에 나타나지 않는 궁핍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⁷⁵⁾ 즉, 메트로 섹슈얼이 연령에 있어서도 보다 성숙하고, 경제적 능력을 갖춘 외모를 가꾸는 남성이라면, 이모는 10대 소년에 가까운 스

70) 박주희 · 하지수, op. cit., pp. 48-61.

71) Ibid.

72) www.urbandictionary.com, 자료검색일 2010. 4. 26.

73) Ibid.

74) M. Salzman, *The Future of Men: The Rise of the Ubersexual and What He Means for Marketing Toda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p. 69.

75) Ibid.

타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있지 않은 남성이다.⁷⁶⁾

따라서 부유함이 패션코드의 하나인 메트로 섹슈얼과 달리 빈티지 풍으로 남성성을 표현하는 이모들은 남성다운 외양은 갖추고 있으나, 상처받기 쉽고 감정적이며, 감정 기복이 심한 남성들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며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더욱 민감하다. 이모인들은 자신의 음악을 듣고 소녀들보다 더 옷차림에 관심이 많으며,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헝클어진 헤어스타일과 건방진 태도, 패션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깊은 학식과 지적수준을 동시에 갖춘 남성들이다.⁷⁷⁾



〈그림 31〉 Dior Homme 2009 S/S
(출처: www.gq.com)



〈그림 32〉 Dior Homme 2006 S/S
(출처: www.style.com)

이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외향적인 면에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며, 검정색의 다소 흐트러지고 헝클어진 헤어스타일을 추구한다, 그들은 여성들보다 패션에 관심이 많고, 타이트한 바지와 딱 붙는 상의를 즐겨 입는다. 또한 대중적인 음악보다는 그들

76) Ibid.

77) M. Salzman, op. cit., pp. 68-69.

만의 즐겨듣는 음악이 있으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다소 여성스러우면서 섹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⁷⁸⁾

〈그림 31〉이나 〈그림 32〉와 같이 2000년대 디올 옴므(Dior Homme)의 컬렉션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러한 이모 스타일⁷⁹⁾은 소년같은 마른 체형에 검은 생머리에 메이크업을 한 모습으로 다른 남성 컬렉션에 비해 여리고 감성적이며 약한 이미지의 남성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모스타일에서의 특징은 전형적인 남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성적 스타일의 창조한 것으로,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의 분류에서 탈구조적, 탈중심적 사고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체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겠다.

2. 섹슈얼리티적 양성성

현대 남성복의 다양한 양성성 중에서 용어 자체에 섹슈얼의 의미를 내포한 메트로 섹슈얼, 크로스 섹슈얼, 위버섹슈얼은 섹슈얼리티적 양성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

서울시내 19-29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2003년 남성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분석’ 설문 분석 자료에 의하면, 19-24세 남성의 67.2%, 25-29세 남성의 64.8%가 필요하다면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분석 자료는 국내 도시 젊은 남성들이 메트로 섹슈얼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⁰⁾

78) www.urbandictionary.com, 자료검색일 2010. 5. 4.

79) 김정연, op. cit., p. 35.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은 여성적 취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패션으로 오인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패션 성향이 동성애적 취향을 지닌 것으로 특정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는 정의하지 않는다.⁸¹⁾

메트로 섹슈얼이라는 용어는 1994년 영국의 저널리스트 마크 심슨(Mark Simpson)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⁸²⁾ 마크 심슨은 메트로 섹슈얼을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에 가까이 살면서 호화 상점과 사교 클럽, 피트니스 클럽과 고급헤어살롱에서 많은 소비활동을 하는 젊은 남성이라고 지칭하였고,⁸³⁾ 또한 영화, 광고, 잡지에서 보이는 나르시스적이고 불안한 남성다움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⁸⁴⁾ 1994년 그는 메트로 섹슈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메트로 섹슈얼은 대도시에 살거나 대도시 근처 지역에 살면서 돈을 쓰는 젊은 남성을 말한다. 그들이 대도시에 사는 이유는 호화 상점, 클럽, 체육관, 미용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성적 취향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일 뿐이다. 메트로 섹슈얼은 모델, 웨이터, 대중매체나 대중음악 종사자, 운동선수 같은 특별한 직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과 사치를 반영하는 고급상품, 피부 미용관련용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⁸⁵⁾

80) 이효진, 「도시남, 멋지고 착한 마초로!」, fashionbiz, 2003년 10월, pp. 99-100.

81) 김정연, op. cit., p. 30.

82) Mark Simpson, <http://www.marksimpson.com/simpsonisms>, 자료검색일 2010. 5. 12

83) Mark Simpson, 「Meet the Metrosexual」, www. salon. com, 2002. 7. 22, 자료검색일 2010. 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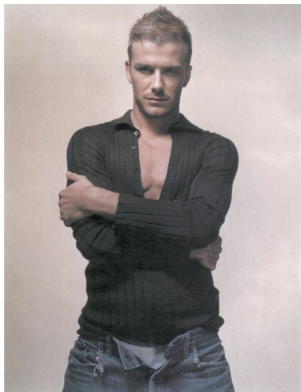
84) Allyce Bess, *Metrosexual: Male who loves clothes and grooming*, St. Louis Post-Dispatch, 2003. 9. 13.

85) Mark Simpson, *Here come the mirror men*, The Independent, 1994. 11. 15.

이처럼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남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시각이 마련되지 않아 메트로 섹슈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이 후 <그림 33>과 같은 데이비드 베컴이나 <그림 34>의 안정환과 같은 축구스타들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메트로 섹슈얼로 구분⁸⁶⁾되어 동경의 대상이 되고, 메트로 섹슈얼이 되기 위한 서적이 출간되고, TV드라마의 등장인물로 소재화되어 관심을 받게 되면서부터 메트로 섹슈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패션에서는 <그림 35>에서와 같이 여성적 느낌의 핑크색 니트 코트를 남성정장과 함께 착용하기도 하며, <그림 36>과 같이 상체가 드러나 보이는 비치는 소재의 실크 쉬폰으로 여성적 블라우스를 남성적 슈트 바지와 함께 선보였다.

메트로 섹슈얼에 대한 비평가들의 반응은 대조적이었는데, 마크 심슨은 메트로 섹



<그림 33> 데이비드 베컴
(출처: <http://k.daum.net>)



<그림 34> 안정환
(출처: ask.nate.com)

슈얼을 일종의 남성들의 허영심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매리언 살즈먼(Marian Salzman)은 메트로 섹슈얼을 자신의 여성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공개

86) 김정연, op. cit., p. 31.

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자신감 있는 남성성으로 표현하였다. 즉, 메트로 섹슈얼은 일반적인 남성에게 비해 비정상적으로 여성적이거나 자아도취적인 남성으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수용하는 남성들으로써 남성의 긍정적 발전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⁸⁷⁾ 따라서 메트로 섹슈얼은 자기 지향적 가치실현을 자유로운 감성으로 표현해내는 남성의 새로운 문화흐름이며,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추어 이전까지 여성의 전유물이던 패션, 뷰티, 성형 등 외모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큰 비중을 두는 남성을 의미한다. 이들은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수용하는 남성들으로써 남성의 긍정적 발전방향으



〈그림 35〉 Etro 2006 F/W
(출처: www.style.com)



〈그림 36〉 Gucci 2006 F/W
(출처:www.style.com)

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은 여성적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출한다. 따라서 메트로 섹슈얼은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의 분류에서 통합성과 해체성을 동시에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87) Ibid.

2)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

크로스 섹슈얼은 여성들의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메이크업 등을 하나의 패션코드로 생각하고 이러한 외적 치장을 즐기는 남성들을 말한다. 이들은 패션 이외의 행동양식은 남성답다는 점에서 생리학적 관점에서 여자 같은 남자인 동성연애자들과는 구별된다.⁸⁸⁾ 이들은 섹시한 스킨을 즐겨 입고, 여성적 디자인의 프릴, 레이스 장식, 주름장식이 가미된 블라우스 셔츠도 소화한다. 이와 같이 여성적 취향을 과감하게 혼합시킴으로써,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의 분류에서 통합적 양성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루엣도 여유 있는 직선형보다는 여성과 같이 허리선이 강조되어 몸에 잘 맞는 스킨 스타일을 선호한다. 최근 남성패션은 이와 같이 어깨와 허리라인을 강조한 셔츠, 엉덩이와 허벅지는 꼭 맞고 다리길이를 실제보다 길어 보이게 하는 바지, 여성스러운 느낌의 디테일 장식과 남성적인 라인을 패딩효과로 강조한 재킷이나 코트가 많다. 이는 남성 속 여성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양성화 경향으로 남성으로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경향을 한 차원 넘어선 패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성적 이미지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벅(David Beckham)은 종종 스커트를 입으며, 테니스와 골프 등의 운동용 스커트, 스커트 잠옷 심지어 매우 짧은 외출용 미니스커트까지 착용하며, 최근 '남성용 치마'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패션디자이너도 나타났다.⁸⁹⁾

〈그림 37〉은 뉴욕 타임즈 패션부문에 게재된 기사⁹⁰⁾로서, 2000년대 후반 남성복

88) 정세희 · 양숙희, “드랙퀸(drag queen)과 드랙킹(drag king)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 54(7), 2004, pp. 135-150.

89) 남자도 치마를 입어야 편하다 남성용 치마잠옷 화제, <http://abisearch.cy.co.kr/arbi?where=post&query>, 자료검색일 2010. 4. 17.

90) Scott Schuman, *Are You Ready for Men in Skirts? Because They've Arrived*, <http://nymag.com/daily/fashion>, 2008. 7. 29. 자료검색일 2010. 4. 7.

에서 나타나는 스커트 패션은 단순히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보는 쇼(show)적인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스커트가 남성복에서 일상적 의복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여성복에 남성적 팬츠 슈트를 차용하여 대유행시킨 것과 다르지 않으며, 남자들도 점차 일상생활에서 스커트의 유행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스커트 착용은 현재 유럽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으며, 곧 뉴욕에서



〈그림 37〉 남성 스커트 패션의 등장

2009 S/S, from left, John Galliano, Comme des Garçons, and Etro.
(출처:www.nymag.com)

도 받아들여 세계적으로 유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는 2003년 11월 3일부터 2004년 2월 8일 까지 〈Bravehearts: Men in Skirts, 그림 38, 그림 39〉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치마는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도전으로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Jean-Paul Gautier)의 후원을 받았다.⁹¹⁾

메트로폴리탄 아트 박물관의 큐레이터 앤드류 볼턴(Andrew Bolton)은 “남성성의 포기(Great Masculine Renunciation)”는 17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남성에게 의복 선택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남성복은 여성복보다 변화의 다양성이 적었으나, 남성복에 스커트 도입은 이루어질 것이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바지를 착용하면서 얻게 된 사회적 지위를 그들도 똑같이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과 동일한 열망이 아닌, 그들만의 특정한 문화를 만들 것이다.⁹²⁾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는 1950년대와 비교하여 경제·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남성들의 옷차림도 변화가 생겼으며 긴 머리와 화려한 프린트의 셔츠, 컬러를 높이 세운 긴 네루 재킷 등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공작새 혁명(Peacock Revolution)’이라고 하며, 1960년대 남성들의 멋내기 혁명을 정의하였다. ‘공작새 혁명’은 남성 패션이 보다 화려해지는 경향을 말하며, 수컷 공작새의 깃털이 암컷보다 아름다운 것에 비유한 표현이다. 이 용어는 1960년대 칼럼리스트 조지 프레지어(George Frazier)가 미국 남성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⁹³⁾

화장을 하고 피부를 가꾸며 예쁜 옷을 입어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남성들의 노력을 가리켜 사회생물학자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한다. 남승희는 “여성이 독립적이 될 때 미소년 애호가 생겨난다.” 라고 하여,⁹⁴⁾ 변화하는 여성의 사회적

91) 김은국, 「치마, 남성도 입고 싶다...‘복장도착’ 아닌 ‘취향’」, www.hani.co.kr/section-001065000, 한겨레신문, 2003. 12. 29., 자료검색일 2010. 2. 20.

92) M. Stevens, *Dress Reversal*, New York Magazine, 2003. 1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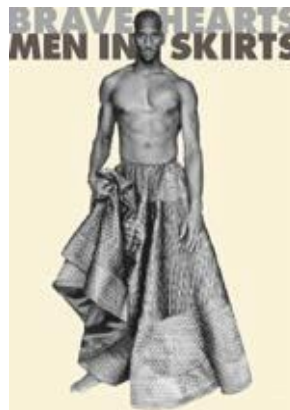
93) 김하형, ‘가을, 남성 패션이 화려해진다’, 뷰티지식정보보털 뷰티누리, <http://www.beautynury.com/bnh/newsView.asp?idx=28595&area=T1&zone=main&whr=&keyword=&catA=O&category=&page=5>, 2007. 8. 10., 자료검색일 2010. 2. 25.

94) 남승희, 「나는 미소년이 좋다」(서울: 해냄출판사, 2001), p. 34.

지위상승과 함께 여성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남성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진화심리학자들이 전형적인 미남 사진을 컴퓨터로 조작하여 여성들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여성들은 동일 인물이라도 얼굴의 특정 부분을 여성적으로 조작한 사진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⁹⁵⁾ 이는 결과적으로 터프한 미남보다 부드러운 여성적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미남을 더 선호하는 현대



〈그림 38〉 Bravehearts-Men in Skirts
(출처: <http://blog.naver.com>)



〈그림 39〉 Brave Hearts 전시회
(출처: lesliecheungforever.net)

95) 박주연, 「남성들이 섹시해지는 이유 있었네」, http://weekly.khan.co.kr/art_print.html?artid=13364, 위클리경향, 2006. 12. 19., 자료검색일 2010. 3. 10.



〈그림 40〉 가수 김장훈 I
(출처:ask.nate.com)



〈그림 41〉 가수 김장훈 II
(출처:www.ibtimes.co.kr)



〈그림 42〉 디자이너 Marc Jacobs
(출처: cocosu.egloos.com)



〈그림 43〉 배우 신현준
(출처: www.sportsseoul.com)

여성의 경향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0〉, 〈그림 41〉과 같이 우리나라 대중가수에게서도 여성적 프릴블라우스를

착용하는 크로스 섹슈얼적 패션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42>와 <그림 43>과 같이 크로스 섹슈얼의 이미지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여성적 아이템인 스커트가 남성적 아이템과 함께 착용되는 예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3) 위버 섹슈얼(Uber Sexual)

위버 섹슈얼은 ‘~위에, 초월한(슈퍼)’ 등의 뜻을 가진 독일어 위버(uber)와 섹슈얼(sexual)의 합성어이며, ‘메트로(metro)-’나 ‘레트로(retro)-’ 섹슈얼을 “뛰어넘는 최고의 남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⁹⁶⁾ 세계적인 광고·홍보회사 JWT의 전략 콘텐츠 책임자이자 사회트렌드 분석가인 매리언 쉐즈먼(Marian Salzman)은 ‘위버 섹슈얼(Ubersexual)’의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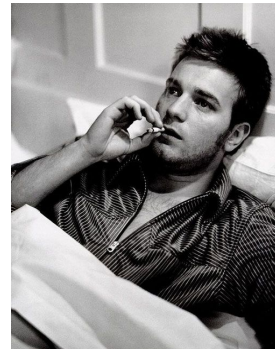
<그림 44> U2의 Bono

(출처:usatomorrownews.com)



<그림 45> 영화배우 George Clooney

(출처:moviestory.net)



<그림 46>영화배우 Ewan McGregor

(출처: [http://:fefefefe.egloos.com](http://fefefefe.egloos.com))

96) 서울=연합뉴스, 「메트로섹슈얼’시대는 가고 ‘위버섹슈얼’ 시대 도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084833, 중앙일보, 2005. 10. 14, 자료검색일 2010. 3. 14.

97) Ibid.

샐즈먼은 '위버섹슈얼'의 남성들을 자신감, 지도력, 정열, 자비심과 같은 남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님과 동시에 여성성, 감정, 풍부한 문화적 소양과 같은 남성들에게 약한 측면들(즉, 여성의 긍정적 측면들)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⁹⁸⁾

샐즈먼은 U2(1976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결성된 록 밴드로서, 보노(Bono, 보컬/리듬 기타)와 디 엣지(The Edge, 기타/키보드/보컬), 아담 클레이튼(Adam Clayton, 베이스 기타), 레리 멀렌 주니어(Larry Mullen, Jr, 드럼/타악기)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활동으로도 유명한 그룹으로, 2005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보컬 보노는 2003년과 2005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으며, The Joshua Tree 등의 앨범의 성공으로 1980년대 이래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록밴드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⁹⁹⁾)의 리드싱어 보노(그림 42)를 '위버섹슈얼'을 재현한 최초의 인물로 보았는데,¹⁰⁰⁾ 그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식을 지닌 자신감과 자비심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배우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 그림 43), 이완 맥그리거(Ewan McGregor, 그림 44), 피어스 브로넨(Pierce Brosnan), 가이리치(Guy Ritchie), 부동산거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등을 위버 섹슈얼적인 인물들로 평가하였다.¹⁰¹⁾

샐즈먼은 위버섹슈얼을 좋은 대화와 예의바른 매너를 겸비한 사람들로 새로운 트렌드라고 정의한다,¹⁰²⁾ 샐즈먼은 위버섹슈얼이 메트로 섹슈얼보다 한층 진화된 사람들

98) 서울=연합뉴스, 「'메트로섹슈얼' 시대는 가고 '위버섹슈얼' 시대 도래」, www.hani.co.kr, 한겨레신문, 2005. 10. 13., 자료검색일 2010. 3. 23.

99) Wikipedia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U2>, 2010. 5. 13., 자료검색일 2010. 4. 2.

100) The Independent, *Metrosexual man is so over(sorry, Becks). So it's Uber to you, George*, <http://www.independent.co.uk/news/uk/this-britain/metrosexual-man-is-so-over-sorry-becks-so-its-uber-to-you-george-506401.html>, 2005. 9. 11., 자료검색일 2010. 3. 22.

101) op. cit., 중앙일보, 2005. 10. 13., 자료검색일 2010. 3. 23.

102) The Independent, *Metro sexual man is so over. So it's Uber to you, George*.

로, 그들은 여성스러운 행동과 패션을 수용하는 것에 지치고, 마초(macho)같은 단순한 남성성을 수용하는 것도 거부한다고 말한다.¹⁰³⁾ 특히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모르게 포스트(Berliner Morgenpost)는 부총리 겸 외무장관 요슈카피셔(Joschka Fischer)를 ‘위버 섹슈얼’이라고 하고,¹⁰⁴⁾ 그는 청바지를 즐겨 입고 음식과 옷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언급하였다.

루이비통(Louis Vuitton) 컬렉션인 〈그림 47〉, 〈그림 49〉는 남성적 스타일의 장점이 나타나면서도 감성적 디자인이 표출되어 위버섹슈얼의 진보되고 세련된 감성이 표출되는 남성복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48〉은 Z Zegna의 2010년 F/W 컬렉션으로 남성적 디자인라인에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의 라인을 통해 남성적 여유로움이 표출되는 디자인을 완성하여 위버 섹슈얼적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버섹슈얼이란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운동 등 외모를 가꾸는 일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내면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현대 남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정의로움이 강하고 자신감이 강하며, 정치·사회적 관심이 많은 반면 예술적 문화적 소양도 풍부한 사람들이다.¹⁰⁵⁾ 즉, 단순히 여성적 취향을 혼합하여 표현하는 크로스섹슈얼보다 진화된 남성스타일로, 여성적 감성을 남성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남성적 스타일을 창조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에서 단순히 여성적 성향을 혼합한 통합적 성향의 크로스섹슈얼과는 달리 위버섹슈얼에서 보여 지는 상징적 의미는 샬즈먼의 분석에서와 같이 새로운 트렌드가 창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해체적 성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5. 9. 11.

103) JWT(marketing communication brand), *Bono The Ultimate Ubersexual*. PR Newswire, 2005. 10. 11.

104) Ibid.

105) 패션채널, 「위버섹슈얼(Uebersexual)이 대세다」, 2005년 12월, p. 23.



<그림 47> Louis Vuitton 2010 F/W
(출처 : www.style.com)



<그림 48> Z Zegna 2010 F/W
(출처 : www.style.com)



<그림 49> Louis Vuitton 2006 F/W
(출처 : www.style.com)

3. 무성화 경향의 혼합적 양성성

현대 남성복의 다양한 양성성 중에서 혼합되어 무성적 경향으로 어느 한쪽의 성에 치우치거나 혼합된 양상을 넘어 성의 부재로 나타난 보더리스와 유니섹스를 무성화 경향의 혼합적 양성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보더리스(Borderless)

보더리스는 border와 less의 합성어로 'border'의 사전적 의미는 경계, 국경을 뜻하며, 'less'는 ~이 없는, ~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 borderless는 경계가 없어진 또는 경계의 초월을 뜻한다.¹⁰⁶⁾

20세기 후반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회문화적 영역 장르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패션분야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 사라진 다양한 양상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패션에서는 성의 영역 뿐 아니라 나라와 지역, 공간, 인종, 나이, 소재, 아이템, 착장법 등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즉, 경계의 구분이 사라지고, 이를 초월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경계의 소멸과 초월현상은 보더리스(borderless)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보더리스는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로서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¹⁰⁷⁾)의 출범 이후 국제적인 경제 체제와 자유로운 무역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등장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분야의 무한경쟁을 의미하여 생겨난 보더리스의 개념은 경제 뿐 만아니라 사회

106) WTO, <http://www.wto.org>, 자료검색일 2010. 5. 13.

107) Ibid.

전반에 그 영향력이 과급되어 인종, 문화를 초월한 공유를 뜻한다. 특히 예술분야에서는 다문화의 유입과 수용, 남자와 여자,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 자체를 초월하고 있다.¹⁰⁸⁾

이러한 현상들은 패션에도 반영되어 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지역, 공간, 인종, 나이, 아이템, 착장법 등의 한계를 초월한다. 즉, 각기 다른 분위기의 아이টে를 코디하여 착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광의적 의미로 기존의 영역을 넘어선 교류, 즉 이질적이고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이 하나의 룩 안에 공존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하는 것이다.¹⁰⁹⁾

이러한 현상은 카오스의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으며, 패션에는 남성과 여성,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과 같은 상호 대립적인 측면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성, 시대, 지역, 용도, 감각 등의 측면을 융합하고 재발견한 현대 패션의 특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¹¹⁰⁾

현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보더리스 현상은 남성복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과 예술, 여성복식에서도 그 변화를 볼 수 있다.¹¹¹⁾ 현대에 와서 남성복식은 여성복식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여성복식이 주가 되어 변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성복식만의 독자적인 변화흐름을 가지고 여성복식과 함께 현대 패션의 유행을 주도해 가는 것이다. 또한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남성복식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08) Ibid.

109) 김문숙 · 김현주,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1(8), 1997, pp. 153-161.

110) 김경아,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less경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8). p. 20.

111) 김병옥 · 이상례, “현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Borderless 현상”,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3(5), 2003, pp. 470-480.

현대 남성복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보더리스 현상들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남성 중심의 지배 문화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통적 남성상과 현대적 남성상이 공존하면서 남성의 미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위와 같이, 남성복에서 보여 지는 여성화 현상은 보더리스 개념의 한 현상으로 여겨지며, 의복으로서 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을 나타낸다.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피부미용에 관심을 갖고 성형을 하는 등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월하고 지배적인 이미지 대신, 전통성을 거부한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남성성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여성에게만 부여되었던 여성의 전형적 이미지들인 관능적이고 섹시한 이미지가 남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것이며, 이러한 남성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양상은 복식에 있어서 남성의 것, 여성의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구분척도가 되지 않으며,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각각의 성이 가지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혼합하여 자유로운 감각으로 다채롭게 표현되어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어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더리스의 개념은 현대 복식의 양성성을 자유로운 감성의 무제한적인 다양한 관점의 재해석을 말하며, 양성성안에서의 제한적 정의조차 벗어난 포용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불확정성, 해체성, 통합성의 모든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양성성의 특성을 정립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음을 의미한다.

2) 유니섹스(Unisex)

1980년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겨 입는 청바지(Jeans)를 시작으로, 유니섹스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성향으로 등장하게 된다.¹¹²⁾ 이는 무성화 경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여성적 특징이나 남성적 특징을 가지지 않는 성적 특징을 배제

한 불확정적 상태를 의미한다. 유니섹스 룩은 처음에는 반항의 표시였으나 패션화되면서부터 본래의 저항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단순한 작업복에서 패션 산업의 주요 아이템으로 변화하였다. 유니섹스 룩의 전개는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을 초월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새로운 현상으로 중성적 또는 성의 개념이 사라진 성의 혁명이며 80년대의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 90년대의 젠더리스 룩(Genderless Look)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¹¹³⁾

유니섹스는 넌 섹스(non-sex), 모노섹스(mono-sex)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하나라는 뜻의 모노는 의복에 있어서 자유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성의 구분이 없는 자유로운 인간의 심리가 의복을 통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¹¹⁴⁾

유니섹스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를 ‘남녀 공용인, 남녀 구별이 없는’의 뜻을 가지며, 로버트 오펜발트(Robert P. Oldenwald)가 그의 저서 ‘사라진 성(The Disappearing Sexes)’에서 기존의 성 개념과 다른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처음 사용하였다.¹¹⁵⁾

패션에서의 유니섹스 룩은 1960년대 후반 청바지(jeans), T-셔츠, 캐주얼 재킷, 운동화 등과 같이 남녀가 같은 아이템의 의상을 착용하는데서 부터 비롯되었다. 유니섹스 룩은 의복을 통해 ‘여성미’와 ‘남성미’를 초월하여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현상으로 성 개념을 탈피한 성의 혁명이었다.¹¹⁶⁾ 이러한 성의 혁명적 변화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변화에서 출발하였으며, 사회에서 성별의 차이를 외적으로 특

112) 이민경 · 한명숙, “유니섹스모드에 나타난 Dualism(이원론)의 현상”, 복식문화연구, 3(2), 1995, pp. 277-291.

113)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Library/history_01_08_s.html, 자료검색일 2010. 5. 15.

114) 이민경 · 한명숙, op. cit., pp. 277-291.

115) 김민자, 「복식미학 강의 II (복식미 엿보기)」 (서울: 교문사, 2004), p. 105.

116) 채금석,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시대별 대표적 디자이너와 그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 44, 1999, pp. 37-56.

정화 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점점 가속화되는 기계문명과 산업화 사회 속에서 소외감과 허무감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 간의 경쟁심대신 서로의 결속력과 동질성을 추구하면서 남녀 구별을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

유니섹스는 ‘남녀 공용 스타일’로서 정의할 수 있으며, 앤드로지너스 룩이 남성이라는 육체 위에 여성적이 복식을, 여성이라는 육체 위에 남성적인 복식을 착용하여 성을 초월한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유니섹스 룩은 남녀 모두 공용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의 형태를 말하며 여성다움을 초월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새로운 현상으로 중성적 또는 성의 개념이 사라진 룩¹¹⁷⁾으로 무성화 성향을 말한다.

〈그림 50〉은 유니섹스 룩을 처음 선보인 영화 애니 홀(Annie Hall, 1977)의 장면으로 여성이 남성적 복장을 한 모습이 나타나며, 〈그림 51〉은 유니섹스 룩의 광고 사진으로 남성과 여성의 바지가 동일함을 강조하면서, 허리사이즈만 24-43인치로 다르다는 것을 광고한 사진이다. 〈그림 50〉은 1960년대 후반부터 유니섹스 룩과 함께 등장한 데님의 1970년대 형태이며, 〈그림 51〉은 2007년 현재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유니섹스 스타일이다.

위와 같이, 현대 남성복의 양성성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2〉와 같으며, 이러한 양성성에 근거한 여성적 이미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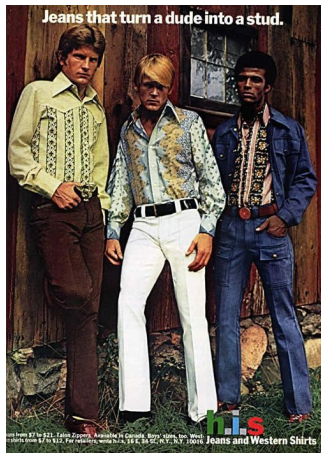
117) 김정원 · 조경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룩의 특징에 관한 연구 -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패션 디자인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응용과학연구지, 1, pp. 273-285.



〈그림 50〉 영화 Annie Hall(1977)
(출처 : <http://numz.net/a/691204>)



〈그림 51〉 Bultaco Matador 1970's
(출처: <http://ridgedualsport.com>)



〈그림 52〉 1970년대 데님 진(jeans)
(출처 : www.canadianblogs.net)



〈그림 53〉 최근의 유니섹스 룩(2007)
(출처 : happypledontcomplain.blogspot)

〈표 2〉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

	대중문화 속의 융합		성적 양성성			무성화경향의 혼합	
	앤드로지너스	이모스 타일	메트로	크로스	위버	보더리스	유니섹스
정의							
특징							
발생연도							
상징적의미							
그림							

〈표 3〉 양성성에 나타난 여성적 이미지의 복식 요소

복식요소	내 용
실루엣	아워클래스 실루엣 , 신체강조 (허리가 피트되는 스타일)
디자인	프린세스 라인, 퍼프 슬리브, 깊게 파인 네크라인, 플레어 라인
디테일	러플, 리본, 셔링, 플레어, 레이스, 자수, 비즈, 코사지
아이템	코르셋, 스커트, 블라우스, 스카프, 브래지어
소재	비치는 소재, 실크, 쉬폰, 오간자, 망사 활동성과 피트감을 주는 소재(니트, 스판소재)
색채	명암이 높은 파스텔 톤 채도가 높은 비비드 톤 Red, Yellow, Pink계열 유채색

IV. 현대 남성복의 양성성을 응용한 디자인 제작

1. 제작 의도

본 연구를 위한 작품 제작은 색채와 소재에 제한을 두어 디자인 측면의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색채의 경우 무채색인 검정과 흰색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소재의 경우에는 남성복의 소재로 사용되는 울과 면을 주로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1) 색채

본 연구의 작품을 위한 색채는 양성성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적 이미지의 색을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검정과 흰색의 색을 기본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검정은 다면성과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양면성 혹은 중립적 성격의 색상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는 '죽음 · 상복을 입음 · 잘못을 뉘우침 · 잘못 · 무지 · 없음 · 나쁨 · 죄 · 악마 · 미신' 등이 있으며, 긍정적(혹은 중립적)이미지로는 '복족 · 땅 · 자궁 · 사랑 · 지혜 · 다이아몬드 · 보편성 · 절대적인 것' 등이 있다. 즉, 다양한 시대나 문화의 흐름은 검정의 양면성이나 다면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¹¹⁸⁾ 이처럼 검정은 중립적 이미지의 색상이며, 본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 색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작품색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본 디자인 연구를 위하여 검정을 기본으로 한 무채색을 사용한 것은 성적 이미지의 한계성을 지닌 유채색 컬러의 이미지를 배제함으로써, 디자인의 양성

118) 하마모토 다카시 · 이토 마사히로, 「색채의 마력」 (과주: 아트북스, 2005), pp. 125-126.

적 이미지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

흰색은 그리스도교의 일원론을 설명하기 위한 이원론에 따른 대립개념으로 검은 색의 반대색상으로 제시한다. 즉, 천국과 지옥, 정의와 악, 삶과 죽음 등으로 구분 하는 연장에서 흰색을 성모 마리아와 천사, 사자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검은색은 악마, 마녀, 늑대 인간 등으로 표현한다. 즉, 흰색 이미지는 검은 색의 반대 이미지 로 사용된다.¹¹⁹⁾ 따라서, 본 연구는 검정에 대한 색채 대비를 위하여 흰색을 대비 색상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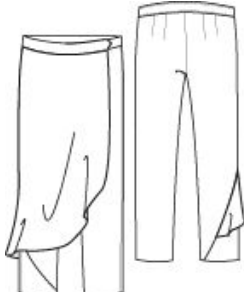
2) 디자인

〈표 2〉에서와 같은 여성적 이미지의 요소를 중심으로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을 디자인하였다. 우선 양성성을 상징적 의미를 통하여 구분하여, 이를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의 세 가지로 분류한 후 디자인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여성적 요소의 디자인을 응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남성복을 여성적 요소의 디테일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을 통해 해석하였으며, 은 디자인 감각을 첨가하여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계획표는 수트, 셔츠, 재킷과 코트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만들었으며, 디자인 계획표를 기준으로 스타일화, 작업 지시서, 패턴을 전개하여 각각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119) Ibid., pp. 4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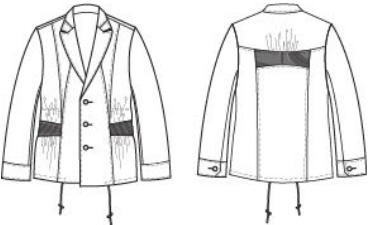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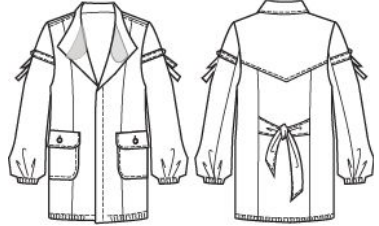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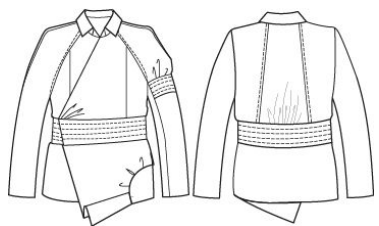

〈표 4〉 슈트 디자인 계획

	양성성의 상징성	품 목	소 재	디테일(응용)	디 자 인
I	통합성	재킷	울 100%	2중 프린세스, 뷔스티에, 어깨절개,	
		바지	울 100%	뷔스티에 응용, 9부 길이	
II	통합성 + 해체성	재킷	울실크	비대칭플라운스, 프린세스, 뒷단 플레어	
		바지	울실크	스커트혼합, 비대칭	

〈표 5〉 셔츠 디자인 계획

	양성성의 상징성	품목	소재	디테일(응용)	디자인
Ⅲ	해체성 + 불확정성	원피스 셔츠	면 100%	앞덧단장식, 셔링, 비대칭허리요크, 비대칭벨트밀단, 가슴다트	
Ⅳ	통합성	셔츠	면 100%	어깨절개선, 프릴, 맞주름, 프린세스 라인, 요크	
Ⅴ	통합성	셔츠	면 100%	리본, 셔링, 3중 프린세스라인, 더블여밈	

〈표 6〉 재킷 · 코트 디자인 계획

	양성성의 상징성	품목	소재	디테일(응용)	디자인
VI	불확정성	캐주얼 재킷	폴리 에스 테르 100%	니트, 고무줄, 셔링, 밑단 스트링	
VII	통합성	캐주얼 재킷	폴리 에스 테르 100%	겹칼라, 퍼프 소매, 리본 매듭, 밑단스트링	
VIII	해체성	캐주얼 재킷	폴리 에스 테르 100%	칼라 분리, 밑단 주머니와 칼라장식, 비대칭여밈, 비대칭소매	
IX	불확정성	코트	캐시 미어 100%	허리다트장식, 더블버튼, 맞주름장식, 래글런 응용, 실크원단혼합	

3) 소재

본 연구의 작품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캐시미어, 울, 폴리에스테르, 면을 사용하였다. 정장 슈트는 울 100%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코트는 캐시미어 100%를 사용하였다. 캐주얼 재킷은 폴리에스테르 100% 원단으로 현재 간절기 재킷으로 유행하고 있는 구김이 가지 않는 원단을 사용하였다. 셔츠의 경우 면 100%의 남성정장용 셔츠원단을 사용하였으며, 재킷과 코트를 위한 안감은 레이온 100%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2. 작품 해설

1) 작품 I

(1) 구성 : 정장 슈트 (재킷, 바지)

(2) 소재 : 겉감 - 울 100% , 안감 - 레이온 100%

(3) 디테일 : 재킷 - 프린세스 라인, 뷔스티에 디자인(재킷 후면)

바지 - 뷔스티에 디자인, 9부 길이

(4) 상징적 의미를 통한 분류 : 통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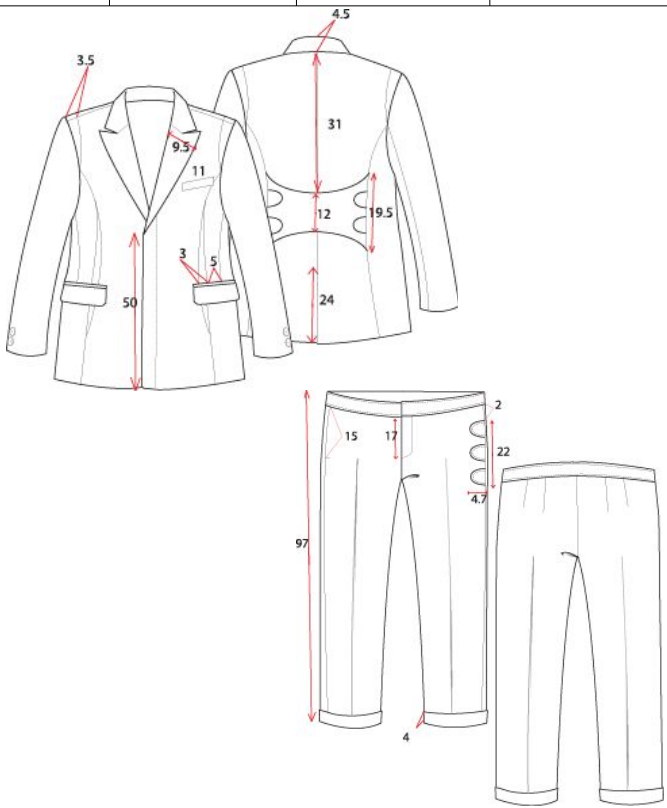
(5) 설명 : 재킷의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슬림한 라인을 위해, 2개의 프린세스라인을 사용하여 여성적인 슬림한 허리라인을 강조(그림 53)하였고, 소매방향의 어깨 부분은 이중 곡선절개를 삽입하여 어깨가 좁아 보이는 여성적 라인을 차용(그림 53)하였다. 재킷의 뒷부분은 1개의 프린세스 라인(그림 53, 그림 56)을 사용하였고, 여성의 뷔스티에를 연상시키는 부착물을 뒤 허리에 첨가하였다. 앞여밈은 이중으로서, 단추가 겉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아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슬림한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단추는 원단과 같은 색상의 두 구멍 싸개단추를 사용하였다.

바지는 발목이 드러나 보이는 9부 길이(그림 53, 그림 54)이며, 활동성을 위해 바지폭이 여유가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재킷에 응용 여성의 뷔스티에를 응용한 부착물을 바지 왼쪽 옆선에도 응용(그림 52, 그림 53)하여 옆선을 따라 봉제·삽입하였다. 바지 끝단은 1.5인치 간격으로 접어 올린 캐주얼한 디자인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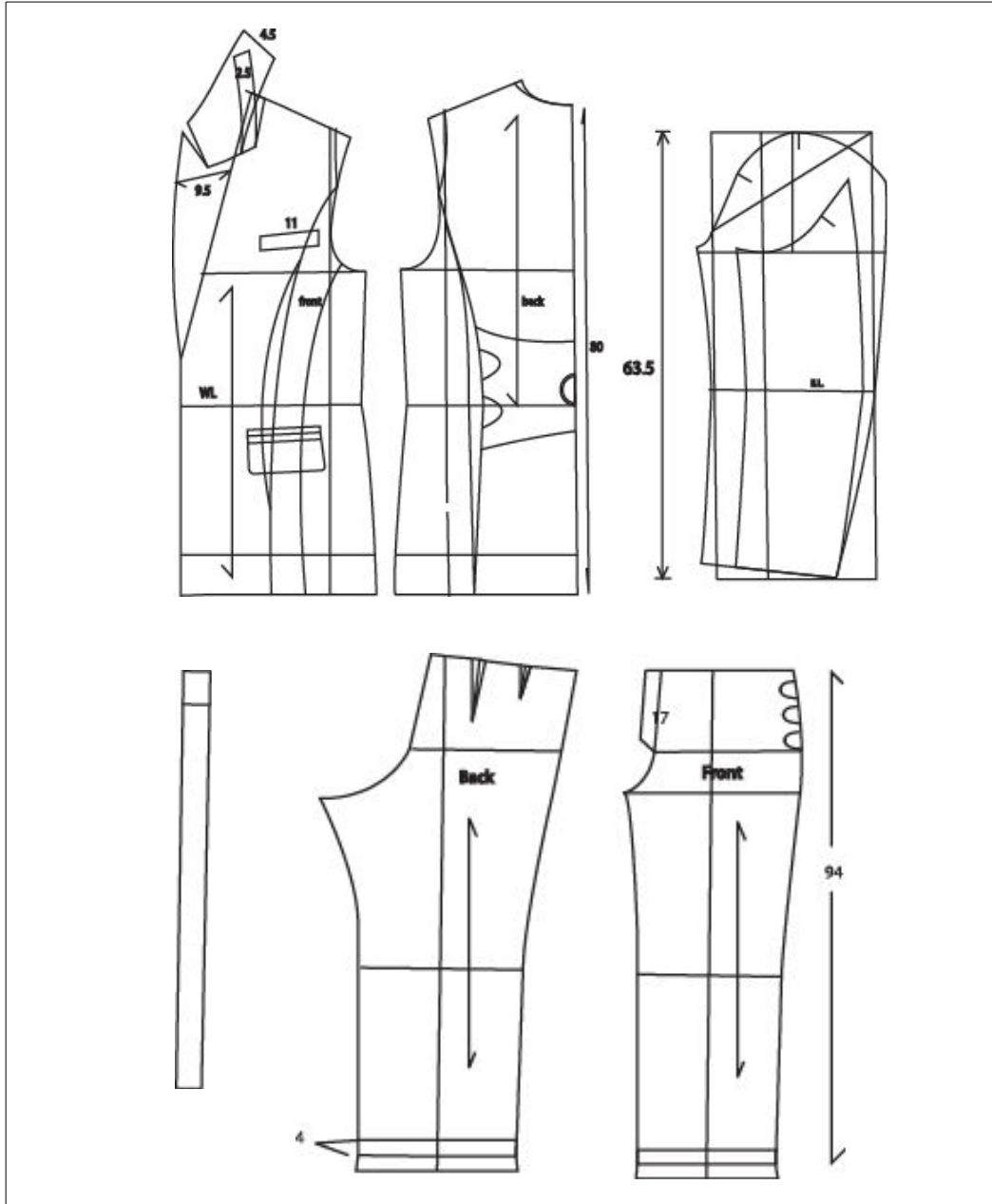
작품 I 은 재킷에 여성복의 프린세스 라인을 응용하고, 어깨 절개선의 디자인을 통해 여성바디와 같은 슬림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또한, 재킷 뒷부분의 부착물은 여성의 속옷인 뷔스티에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이처럼 여성적 디테일을 응용하여 남성복에 적용하였으며, 양성성의 상징적 이미지로써 통합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54〉 작품 I 의 스타일화

style no.	샘플제작사	의뢰일	완성일	SIZE SPEC	호칭
FW-ST001					175(M)
				가슴둘레	92
				허리둘레	82
				뒷트임	24
				총길이	80
				어깨너비	46
				소매길이	63.5
				커프스둘레	x
				밑단둘레	110
				커프스너비	x
				여밈폭	2.5
				칼라너비	7.5
				허리둘레	82
				엉덩이둘레	99
바지길이	97				
바지부리	24.5				
벨트너비	3				
				추 가 설 명	
				자켓 - 속단추어밈 프린세스라인3개(FRONT)	
				바지 - 9부 길이, 앞트임	
원단 quality 및 color / 추가 설명 걸감 - 울 100%, 안감 레이온 100%				부자재	
				item	size(수량)
				앞단추	20mm(4)
				소매단추	16mm(4)
				어깨패드	10mm(2)
1	2	3	4	바지지퍼	8 "
자켓 후면	flap pocket			후크	바지용 1
부착물	14 * 6cm			스냅	X

〈그림 55〉 작품 I 의 작업지시서



〈그림 56〉 작품 I 의 패턴 전개



〈그림 57〉 작품 I 의 전면



〈그림 58〉 작품 I 의 후면

2) 작품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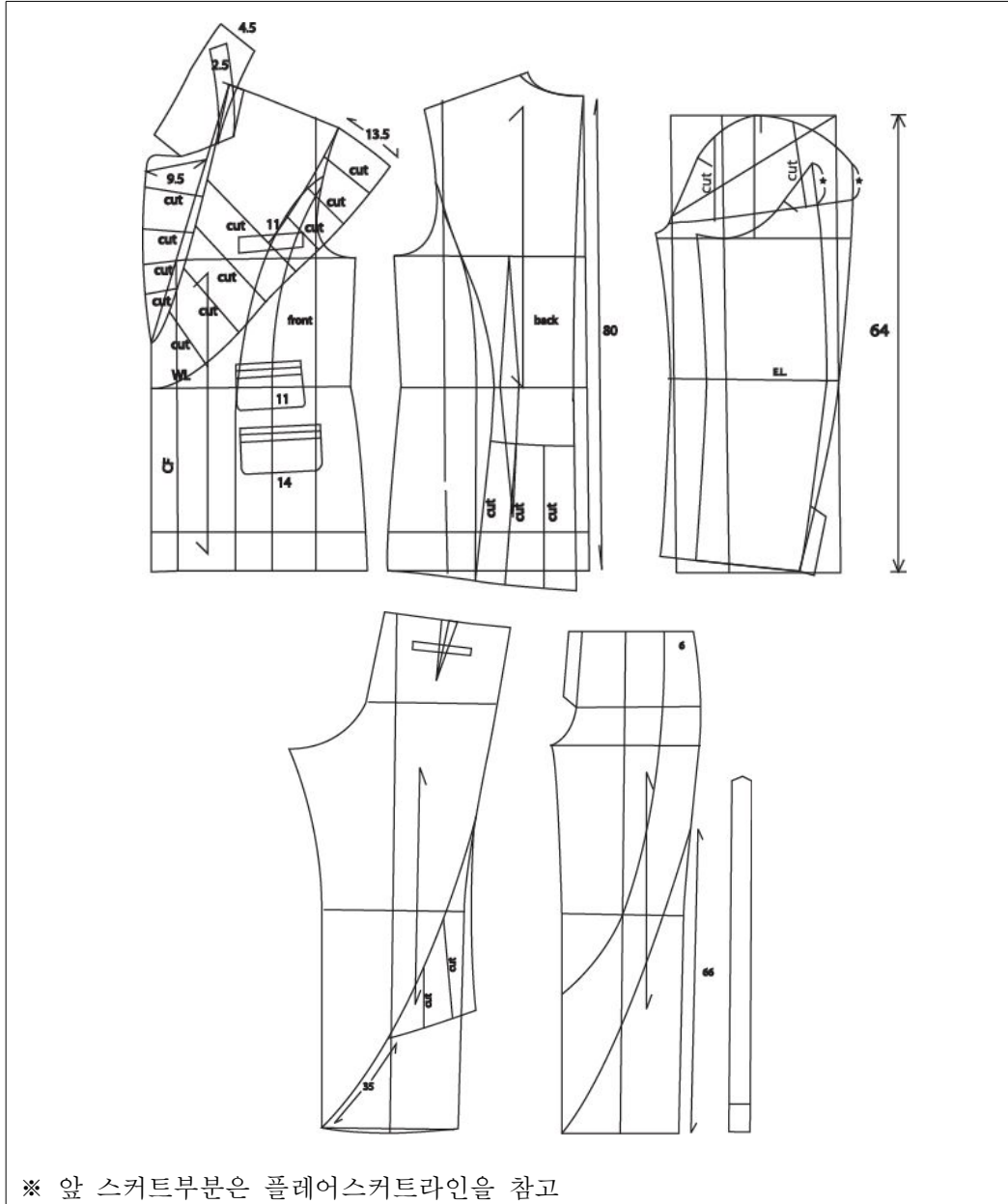
- (1) 구성 : 정장 슈트 (재킷, 바지)
- (2) 소재 : 겉감 - 울 실크, 안감 - 레이온 100%
- (3) 디테일 : 플라운스, 플레어 스커트 라인
- (4) 상징적 의미를 통한 분류 : 통합성 + 해체성
- (5) 설명 : 전체적 실루엣은 플라운스(flounce)라인을 응용하여 우아한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재킷의 왼쪽라펠은 오른쪽 라펠보다 폭이 넓게 제작되었으며, 실크 쉬폰을 사용하여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재킷의 오른쪽 라펠은 어깨선과 소매 윗부분으로 연장되는 플라운스 패턴 (그림 61, 그림 63)을 사용하여 여성적 디자인을 완성하여, 통합성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재킷에서 나타나는 두 줄의 프린세스라인(그림 62, 그림 64)은 보다 슬림한 실루엣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재킷 후면의 경우 중앙 밑단부분을 플레어지도록 재단(그림 58)하여, 여성의 플레어 스커트를 연상시키도록 하였으며, 일반 정장 재킷의 뒷 트임을 대신할 수 있는 여유분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바지는 스커트와 혼합된 통합성으로 해석되며, 왼쪽 허리선에서부터 오른쪽 바지 뒷부분으로 연장되는 스커트를 응용한 스커트바지의 형태를 완성(그림 58, 그림 60)하였다. 다리 움직임에 의한 활동을 감안하여 스커트는 오른쪽 뒷부분에서만 봉제(그림 61)되어 고정되어, 움직임에 불편이 없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59〉 작품 II 의 스타일화





〈그림 62〉 작품 II 의 전면



〈그림 63〉 작품 II 의 후면



〈그림 64〉 작품 II의 디테일 - 프린세스 라인



〈그림 65〉 작품II의 디테일 - 라펠

3) 작품 III

(1) 구성 : 원피스 셔츠

(2) 소재 : 면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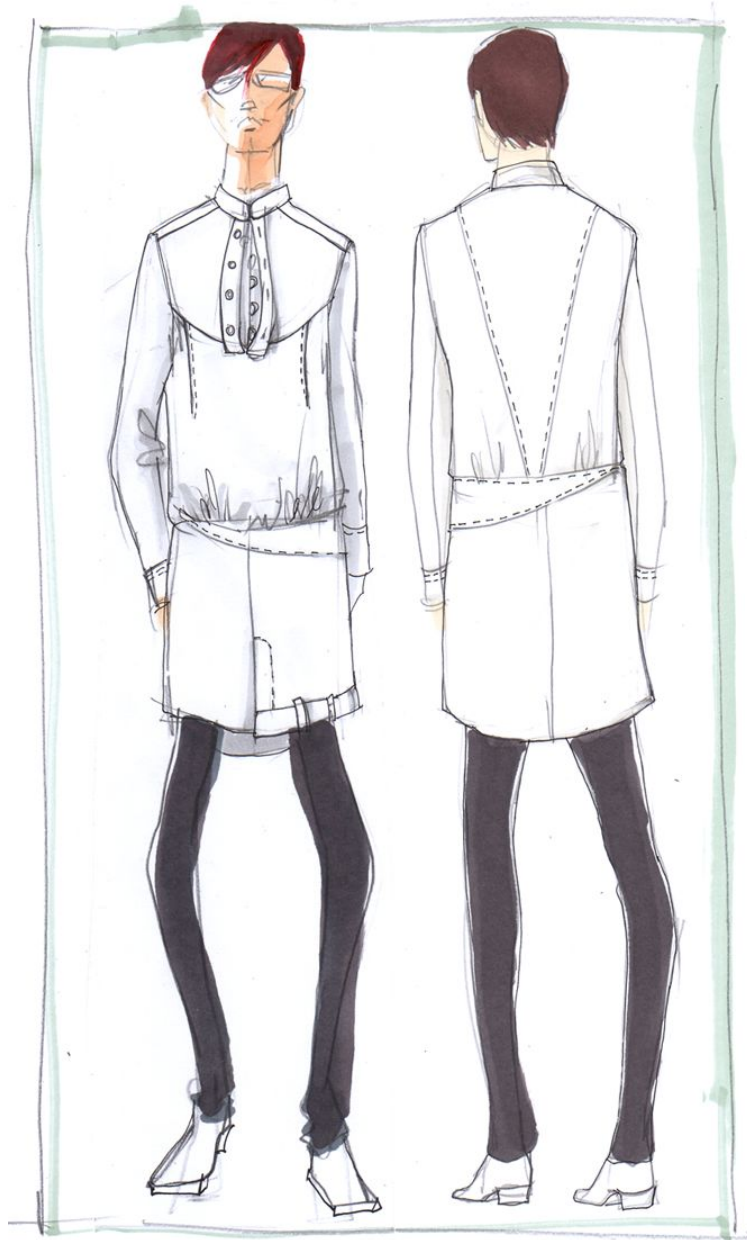
(3) 디테일 : 이중 앞여밈 장식, 가슴곡선다트, 셔링, 허리벨트 밑단

(4) 상징적 의미를 통한 분류 : 불확정성 + 해체성

(5) 설명 : <그림 64>의 스타일화에서와 같이, 셔츠 길이는 여성의 원피스를 연상시키도록 무릎에서 4인정도 올라간 길이로 제작하였다.

해체성의 관점에서 구조성을 탈피한 디자인으로 여성적 라인의 가슴다트를 허리가 아닌 가슴에서 연장(그림 65)시켰으며, 허리선의 절개를 통하여 셔링을 주어 허리다트의 효과를 대체하였다(그림 65, 그림 67). 앞여밈은 단추 여밈의 앞 덧단을 리본장식 효과와 혼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성적 이미지를 탈피한 장식효과를 주었으며(그림 67, 그림 70), 이는 기존의 관념을 탈피한 해체성과 불확정성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7>과 <그림 68>에서와 같이 다양한 요크의 절개선을 디자인에 도입하여, 전면에는 깊게 파인 과감한 라운드 네크라인을 연상, 혹은 남성의 캐주얼 셔츠의 요크를 연상시킨다. 후면은 허리선까지 깊게 파인 과감한 V자형 네크라인으로 다양한 요크선을 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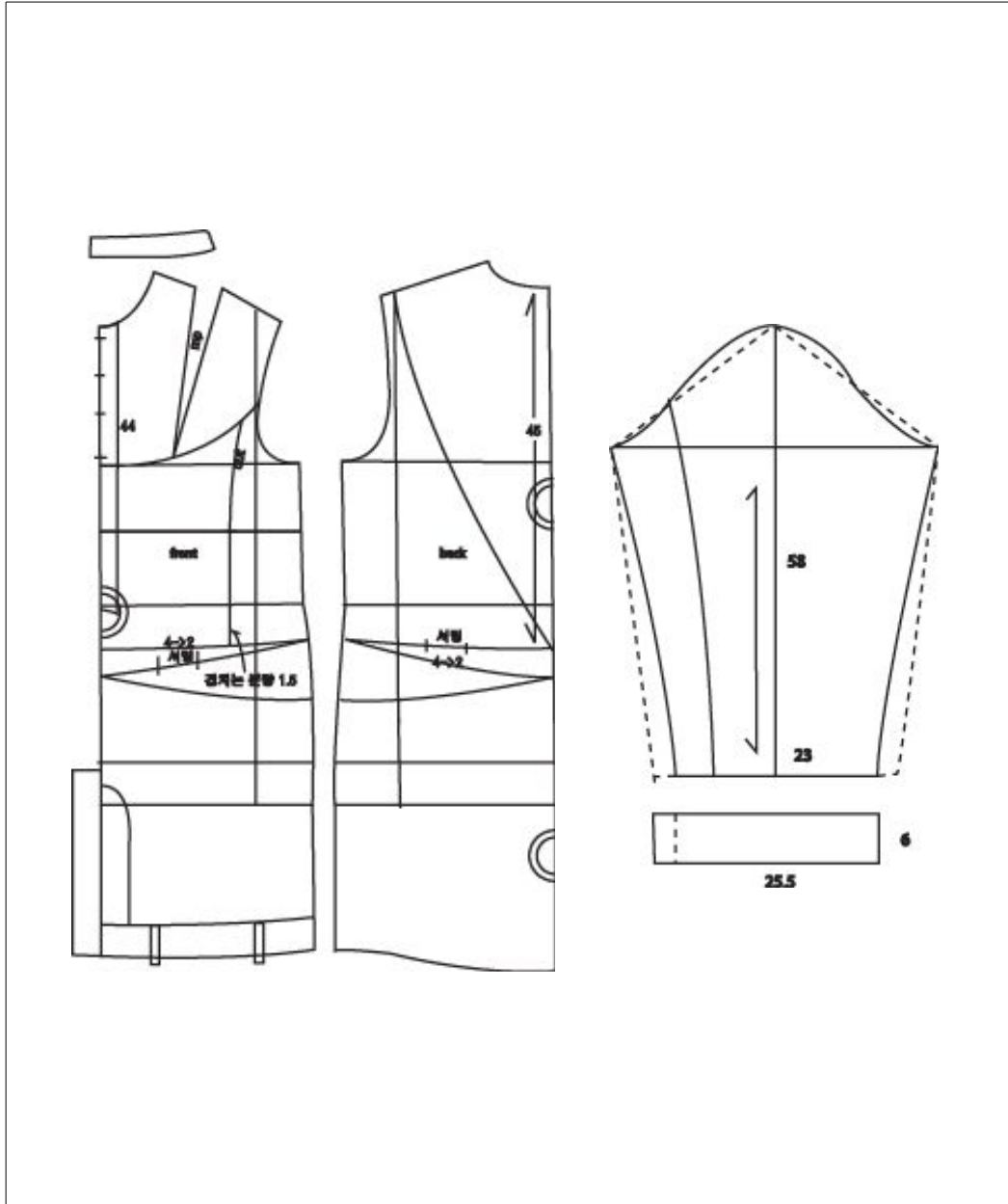
허리선은 비대칭으로 절개선을 주었으며, 칼라는 스탠딩칼라를 차용하였다. <그림 69>에서와 같이 셔츠 밑단의 경우 바지의 허리벨트 부분을 연상시키도록 비대칭으로 왼쪽에 삽입하였으며, 활동성을 위한 트임을 주기 위해 바지의 지퍼 여밈 부분까지 차용하였다.



〈그림 66〉 작품 Ⅲ의 스타일화

style no.	샘플제작서	의뢰일	완성일	SIZE	호칭																
FW-LSHT001				SPEC	175(M)																
DESIGN 				가슴둘레	96																
				허리둘레	94																
				등길이	45																
				총길이	100																
				어깨너비	44																
				소매길이	63																
				커프스둘레	23																
				밑단둘레	112																
				커프스너비	6																
				앞어밌너비	2.5																
				칼라너비	3.5																
				목너비	17.5																
				앞길이	43.5																
								추 가 설 명													
								앞어밌덧단 이중어밌 (루프단추어밌)													
				허리양쪽 셔링 (앞, 뒤)																	
원단 quality 및 color / 추가 설명				부자재 <table border="1"> <thead> <tr> <th>item</th> <th>size(수량)</th> </tr> </thead> <tbody> <tr> <td>앞단추</td> <td>10mm (8)</td> </tr> <tr> <td>소매단추</td> <td>10mm (4)</td> </tr> <tr> <td>고무줄</td> <td>X</td> </tr> <tr> <td>어깨패드</td> <td>X</td> </tr> <tr> <td>밑단줄</td> <td>X</td> </tr> <tr> <td>바지지퍼</td> <td>10"</td> </tr> <tr> <td>스냅</td> <td>X</td> </tr> </tbody> </table>		item	size(수량)	앞단추	10mm (8)	소매단추	10mm (4)	고무줄	X	어깨패드	X	밑단줄	X	바지지퍼	10"	스냅	X
item	size(수량)																				
앞단추	10mm (8)																				
소매단추	10mm (4)																				
고무줄	X																				
어깨패드	X																				
밑단줄	X																				
바지지퍼	10"																				
스냅	X																				
면100% (남성셔츠용 원단)																					
1	2	3	4																		
허리벨트고리																					
너비 1.2cm																					

〈그림 67〉 작품 Ⅲ의 작업지시서



〈그림 68〉 작품 III 의 패턴 전개



〈그림 69〉 작품 III 의 전면



〈그림 70〉 작품 III 의 후면



〈그림 71〉 작품 Ⅲ의 디테일 - 밑단



〈그림 72〉 작품 Ⅲ의 디테일 - 앞여밈

4) 작품 IV

(1) 구성 : 셔츠

(2) 소재 : 면 100%

(3) 디테일 : 프린세스(princess)라인, 프릴(frill), 주름장식, 셔링(shirring)

(4) 상징적 의미를 통한 분류 : 통합성

(5) 설명 : 작품 IV의 셔츠는 영덩이 길이며, <그림 71>과 <그림 72>에서와 같이, 여성적 디자인의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 프릴과 맞주름장식을 응용하였다. 어깨라인은 <그림 73>과 같이 기존의 어깨끝선을 이용하지 않고, 옆목점에서 어깨끝점의 이등분점을 지정하여 어깨가 좁아 보이는 효과를 통해 여성적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앞여밈 덧단의 왼쪽부분에 맞주름을 통한 장식적 효과를 주었으며, 셔츠의 소매부분은 <그림 76>과 같이 래글런 슬리브와 같이 어깨끝점을 중심으로 수직선으로 절개를 주어 어깨라인 실루엣이 각이 지지 않도록 하였고, 소매 끝부분에 t셔링부분을 넣고, 1인치간격의 프릴장식을 삽입하였다.

셔츠 전면 몸판의 경우 <그림 74>처럼 V자형 요크선과 프린세스라인을 혼합하였으며, 후면 몸판에서는 <그림 75>와 <그림 77>과 같이 변형된 형태의 요크와 프린세스라인이 어우러진 절개선을 완성하였다(그림 72, 그림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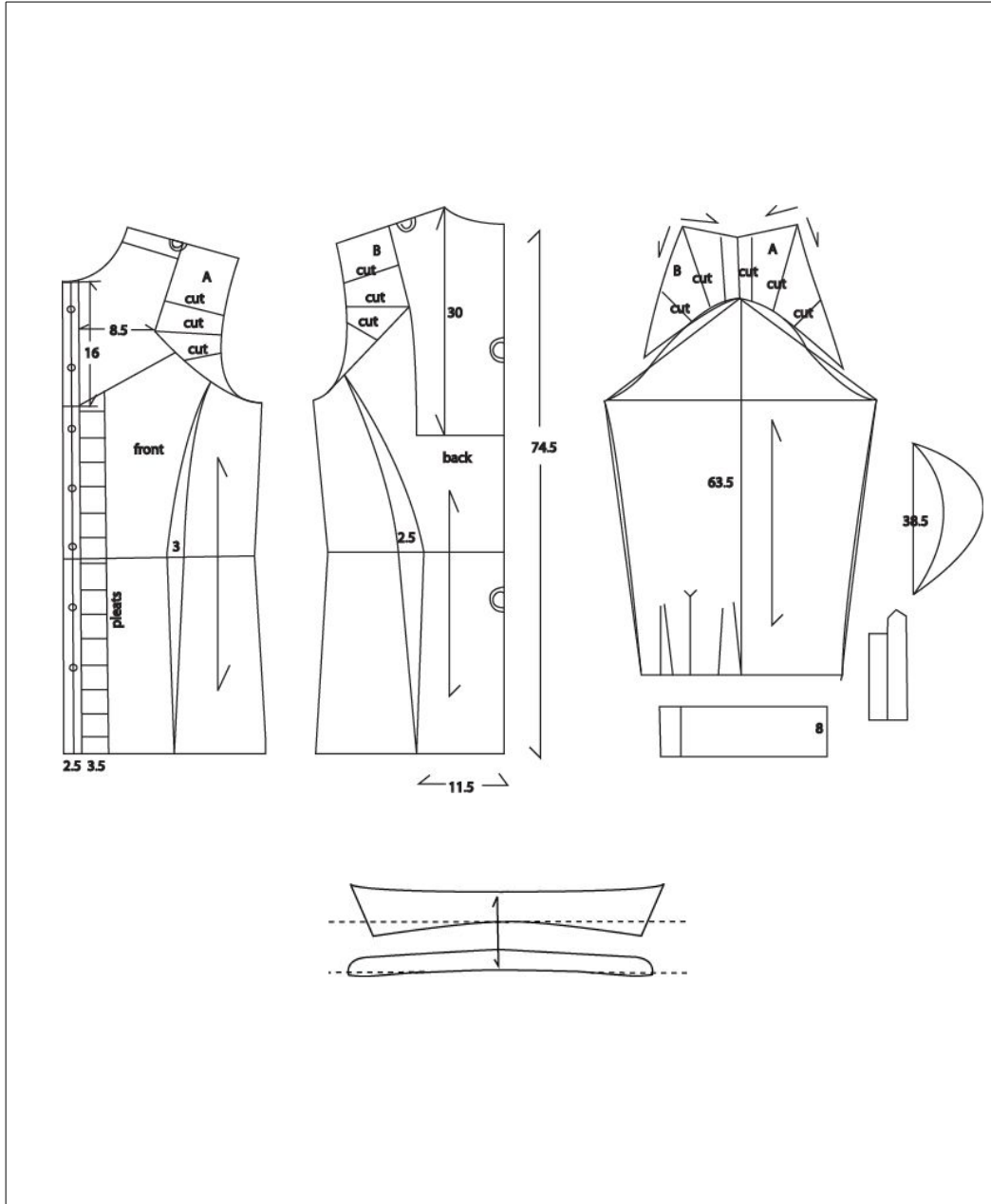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여성적 디테일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디자인으로, 상징적 의미에서 분류할 경우 통합성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73〉 작품 IV 의 스타일화

style no.	샘플제작서	의뢰일	완성일	SIZE	호칭
FW-SHT001				SIZE SPEC	175(M)
DESIGN 				가슴둘레	97
				허리둘레	90
				앞길이	74
				총길이	74.5
				소매길이	71.5
				커프스둘레	21
				밑단둘레	106
				커프스너비	8
				여밈폭	2.5
				칼라너비	7.5
				추 가 설 명	
				앞여밈 속단추	
				소매트임 12cm (커프스미포함)	
				커프스단추 3개씩	
원단 quality 및 color / 추가 설명				부자재	
면100% (dot 셔츠용)				item	size(수량)
				앞단추	10mm(6)
				소매단추	10mm(6)
				고무줄	X
				어깨패드	X
				밑단줄	X
				후크	X
				스냅	X
				칼라심지	
1	2	3	4		
맞주름	심지				
폭3.5, 주름양1.5	칼라, 단작, 커프스				
간격4cm					

〈그림 74〉 작품 IV 의 작업지시서



〈그림 75〉 작품 IV 의 패턴 전개



〈그림 76〉 작품 IV 의 전면



〈그림 77〉 작품 IV 의 후면



〈그림 78〉 작품 IV 의 디테일 - 소매, 앞여밈



〈그림 79〉 작품 IV 의 디테일 - 요크, 어깨

5) 작품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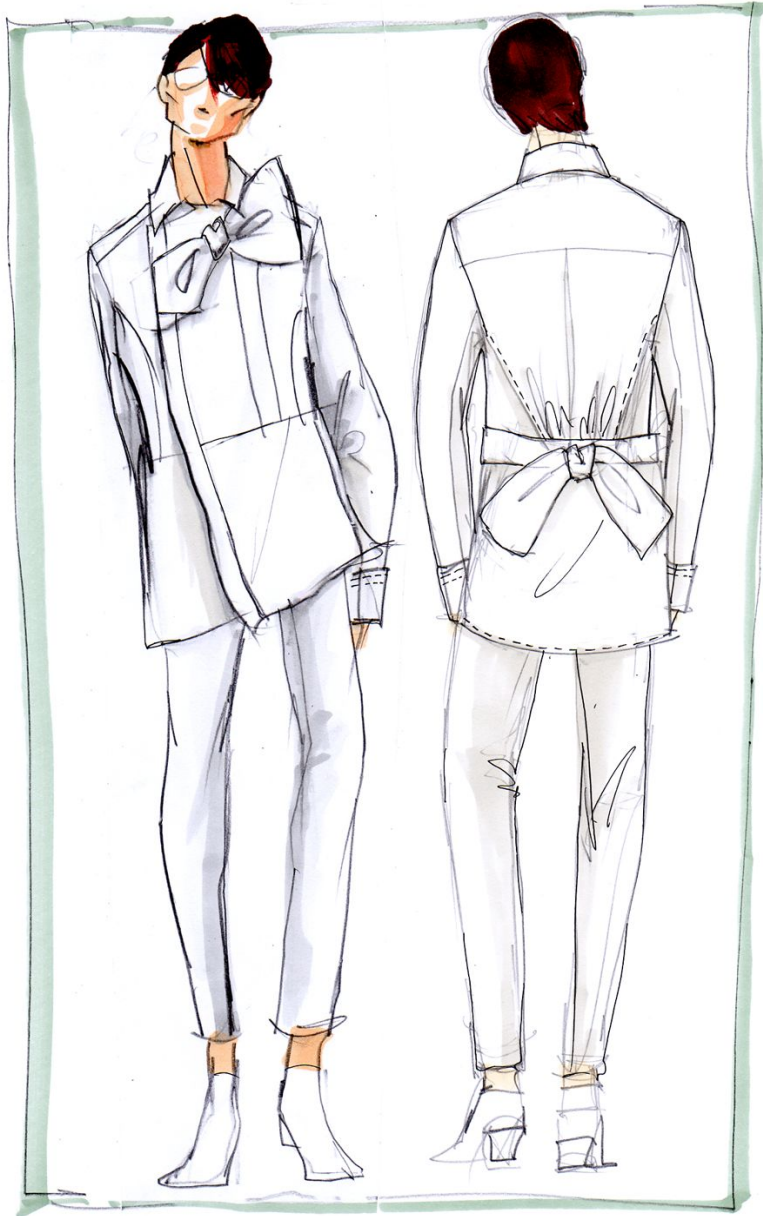
- (1) 구성 : 셔츠
- (2) 소재 : 면 100%
- (3) 디테일 : 리본, 셔링, 맞주름, 프린세스 라인, 더블 여밈
- (4) 상징적 의미를 통한 분류 : 통합성
- (5) 설명 : 작품 V는 여성적 이미지의 요소로 리본효과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리본은 칼라 아랫부분에 비대칭의 형식으로 부착되었으며, 셔츠 후면 리본의 경우 허리 부분에서 밴드와 함께 부착되었다. 리본부착은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운 여성적 이미지를 혼합하였다.

셔츠의 여밈은 더블 여밈으로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스냅으로 처리하였으며, 셔츠 앞덧단 부분은 디자인장식으로 활용하였다. 셔츠길이는 약간 긴 형태로 허리선에 절개를 넣어 짧은 감각을 주었고, 프린세스라인을 응용하여 3중의 절개라인을 주어 슬림한 느낌을 완성하였다.

셔츠 후면은 요크선 절개를 넣은 후, 아랫부분에 맞주름을 유지하되 허리선에서 볼륨감을 살려 셔링을 넣어 여성적 디테일을 가미하였다. 밑단의 경우 앞단보다 약간 길게 하여 부드러운 여성적 느낌을 주었다. 소매 커프스는 소매단추를 3개 넣을 정도의 너비로 약간 넓게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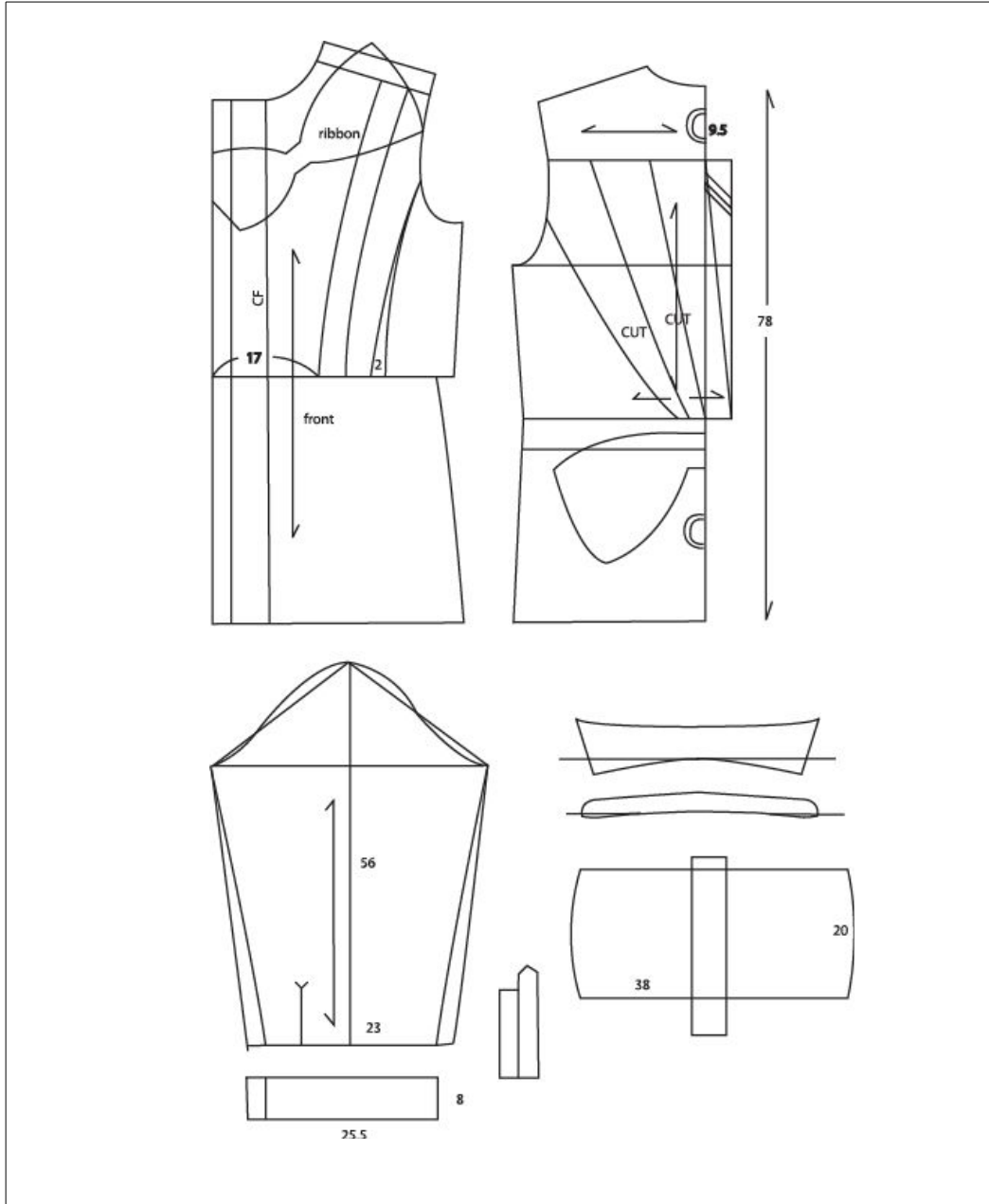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작품 V는 여성적인 느낌의 셔링장식과 리본장식을 사용하여 여성적 디테일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서 통합성의 디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0〉 작품 V 의 스타일화

style no.	샘플제작서	의뢰일	완성일	SIZE	호칭				
FW-SHT002				SPEC	175(M)				
DESIGN 				가슴둘레	101				
				허리둘레	92				
				총길이	78				
				어깨너비	43				
				소매길이	64				
				커프스둘레	23				
				밑단둘레	100				
				커프스너비	8				
				여밈폭	7.5				
				칼라너비	8				
				칼라밴드	3.5				
				소매트임	14				
								추 가 설 명	
								더블여밈(스냅 단추)	
				원단 quality 및 color / 추가 설명 면100% (트윌, 남성셔츠용)				부자재	
				item	size/수량				
				앞단추	6mm스냅				
				소매단추	10mm(6)				
				고무줄	X				
				어깨패드	X				
				밑단줄	X				
				후크	x				
1	2	3	4						
앞리본	뒷리본	뒷 맞주름양	뒤 허리밴드						
34*18	42*16	7	5.5						

〈그림 81〉 작품 V 의 작업지시서



〈그림 82〉 작품 V 의 패턴 전개



〈그림 83〉 작품 V 의 전면



〈그림 84〉 작품 V 의 후면



〈그림 85〉 작품 V 의 디테일 - 여밈, 리본장식



〈그림 86〉 작품 V 의 디테일 - 맞추름, 뒷면 리본

6) 작품 VI

(1) 구성 : 캐주얼 재킷

(2) 소재 : 겹감 - 폴리에스테르 100%, 면 폴리혼방 니트, 안감 - 레이온 100%

(3) 디테일 : 셔링, V라인 절개, 스트링, 니트

(4) 상징적 의미를 통한 분류 : 불확정성

(5) 설명 : 작품 VI의 소재는 부드럽고 구김이 가지 않는 중량감 있는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소재 중에서 허리와 요크 하단부분에 니트 조직의 밴드원단을 첨가하여 활동적인 느낌을 주었다. 밴드처리 아랫부분에 이중직 니트를 사용하여 셔링과 함께 편안한 느낌의 여성스러운 장식효과를 가미하였다.

가슴부분 절개선은 어깨에서 B. P. 점까지 V자형으로 두 개의 절개선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칼라부분은 칼라와 라펠의 절개선 이 외에 장식적인 절개선을 삽입하여 캐주얼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재킷 후면은 요크선을 따라 어깨 부분에 활동성을 주기위해 여유분을 넣어 셔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재킷 전면의 이중직 니트 장식과 같은 디자인 효과를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재킷 밑단은 스트링으로 폭 조절이 가능하게 하여 활동성을 가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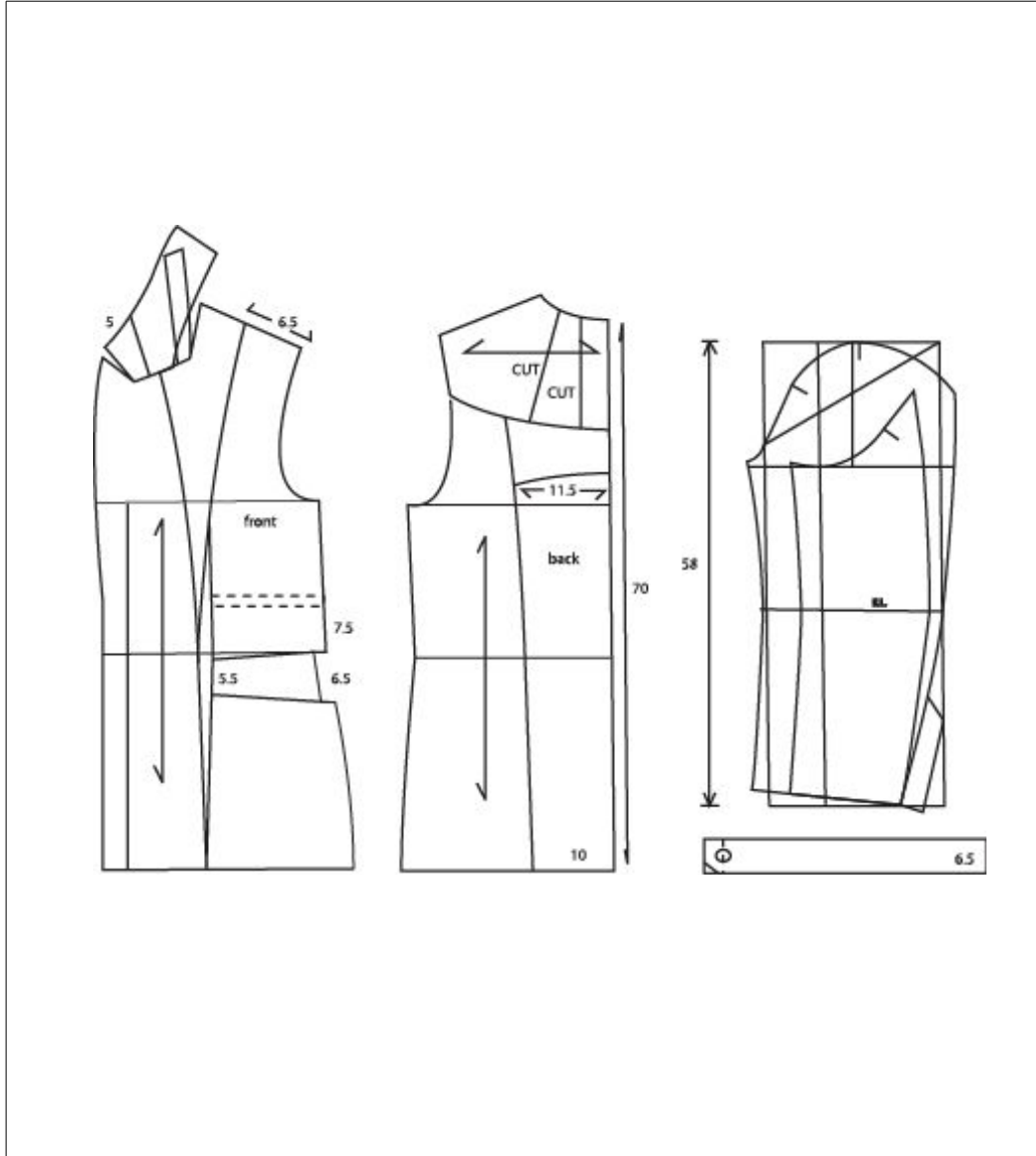
작품 VI은 캐주얼 재킷의 특성인 활동성을 고려한 여성적 디테일로써 디자인 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미지가 남성복에 잘 융합되어, 어느 한 쪽 성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불확정성의 이미지로 해석되었다.



〈그림 87〉 작품 VI 의 스타일화

style no.	샘플제작서	의뢰일	완성일	SIZE	호칭
FW-CJKT001				SPEC	175(M)
<p>DESIGN</p>				가슴둘레	104
				허리둘레	98
				등길이	
				총길이	70
				어깨너비	46
				소매길이	64.5
				커프스둘레	20
				밑단둘레	108
				커프스너비	6.5
				어밌폭	2.5
				칼라너비	9
				앞길이	72
				목너비	19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길이	
				바지부리	
				밑위길이	
				바지통	
				-스티치간격 5mm	
				-소매트임분 6.5cm	
				-밴드니트(시보리)부분은	
<p>원단 quality 및 color / 추가 설명</p> <p>겉감 - 폴리100% (모달), 밴드니트(사카리바, 폴리혼방)</p> <p>안감 - 레이온 100%</p>				부자재	
				item	size(수량)
				앞단추	20mm(3)
				소매단추	20mm(2)
				밑단줄	지름4mm
				어깨패드	6mm
				스티치사	실크100%
1	2	3	4		

〈그림 88〉 작품 VI 의 작업지시서



〈그림 89〉 작품 VI 의 패턴 전개



〈그림 90〉 작품 VI 의 전면



〈그림 91〉 작품 VI 의 후면



〈그림 92〉 작품 VI 의 디테일 - 허리

7) 작품 VII

- (1) 구성 : 캐주얼 재킷
- (2) 소재 : 겹감 - 폴리에스테르 100%, 실크 100%, 안감 - 레이온 100%
- (3) 디테일 : 끈 장식, 이중절개 칼라, 스트링
- (4) 상징적 의미를 통한 분류 : 통합성
- (5) 설명 : 작품 VII의 경우 여성적 복식요소를 가미한 리본 매듭 장식과, 칼라부분절개선에 다른 칼라를 삽입하여 이중 칼라의 효과를 준 디자인으로 여성적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재킷 칼라는 칼라부분과 안단부분의 봉제선 사이에 실크 쉬폰으로 플라운스를 준 칼라를 삽입하여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소매 부분은 소매밑단부분에 여유를 준 여성스러운 느낌의 퍼프형태이며, 고무밴드처리로 활동성을 주었다. 어깨소매 진동선 부분에서 끈을 넣어 소매의 중심선부분에서 끈으로 리본매듭장식을 하였으며, 재킷 후면의 허리부분에서 프린세스라인 사이에 끈을 넣어 허리 여유를 조절할 수 있는 리본매듭장식을 주었다.

재킷의 몸판에 프린세스라인은 전면과 후면에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전면부분의 허리선에서 2인치 아래로 내려온 부분에 아웃포켓을 부착하여 활동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재킷 길이는 무릎에서 5인치정도 올라간 길이이며, 밑단부분에 스트링을 넣어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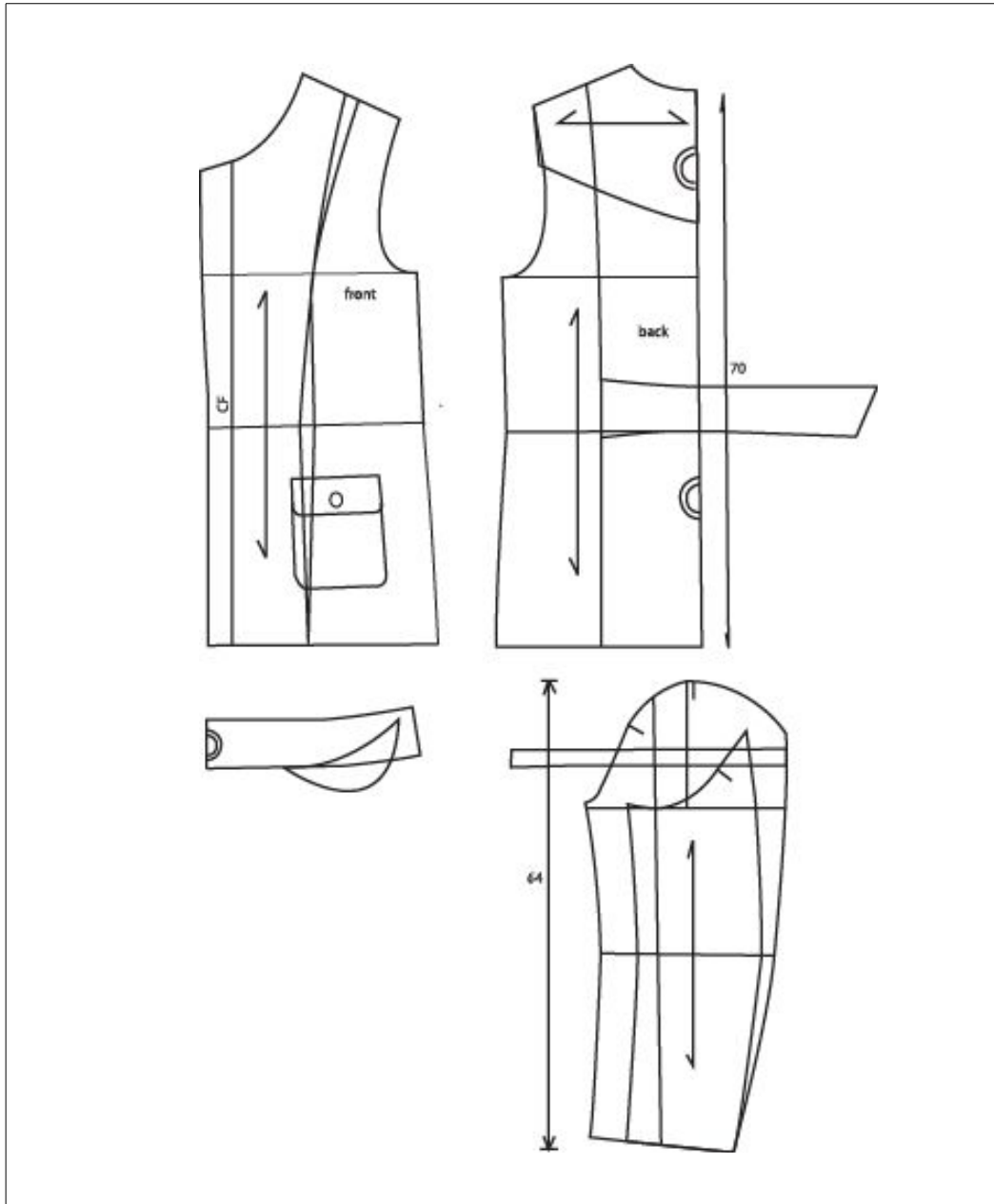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작품 VII는 전체적으로 여성적 이미지와 활동성을 가미한 캐주얼 재킷으로 여성적 이미지의 디테일이 강하게 부각된 통합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93〉 작품 VII 의 스타일화

style no.	샘플제 작성	의뢰일	완성일	SIZE	호칭
FW-CJKT02				SPEC	신장175(M)
				가슴둘레	94(cm)
				허리둘레	94
				앞길이	78
				총길이	77
				어깨너비	44
				소매길이	64
				커프스둘레	22
				밑단너비	60
				밴드너비	2.5
				어밌폭	2.5
				칼라너비	6
				목너비	17
				소매리본	너비 2.5
				뒤허리리본	너비 7.5
				속단추 여밌 뒷판 요크날개 부착 밑단+소매단=고무밴드 스티치너비 5mm	
원단 및 color / 추가 설명				부자재	
겉감 - 폴리에스테르 100%(모달), 실크쉬폰 100%				item	
안감 - 레이온 100%				size(수량)	
1	2	3	4	앞단추	12mm(4)
				소매단추	X
				고무밴드	25mm
				어깨패드	6mm
				밑단줄	지름 4mm
포켓너비	포켓뚜껑(flap)			포켓단추	18mm(2)
top - 13.5	13.5 * 6cm			실	폴리100%
bottom - 14cm				스티치실	실크100%

〈그림 94〉 작품 VII 의 작업지시서



〈그림 95〉 작품 VII 의 패턴전개



〈그림 96〉 작품 VII 의 전면



〈그림 97〉 작품 VII 의 후면



〈그림 98〉 작품 VII 의 디테일 - 소매, 칼라

8) 작품 Ⅷ

(1) 구성 : 캐주얼 재킷

(2) 소재 : 겉감 - 폴리에스테르 100%, 안감 - 레이온 100%

(3) 디테일 : 비대칭 사선 여밈, 허리벨트 스티치, 래글런 퍼프소매

(4) 상징적 의미를 통한 분류 : 해체성

(5) 설명 : 작품 Ⅷ은 여성적 이미지의 복식요소를 해체성의 관점에서 응용하였다. 여성적 요소인 주름장식, 퍼프소매, 셔링을 장식적 효과로 사용하였으며, 복식의 디테일적 요소의 위치를 변형시켜 탈구조적 관점에서 디자인하였다.

칼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스탠딩칼라를 사용하였고, 셔츠칼라부분은 단추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매의 경우 앞쪽은 래글런슬리브의 형태이며, 뒷면은 일반 슬리브의 형태로 제작하여, 전면과 후면형태의 반전효과를 주었다. 왼쪽소매는 비대칭으로 퍼프슬리브를 변형시키고 가로선의 스티치장식을 가미한 밴드를 삽입하여 여성적이며 발랄한 이미지를 주었다. 슬리브의 밴드형 스티치장식은 허리벨트부분의 장식으로도 연결되는 디자인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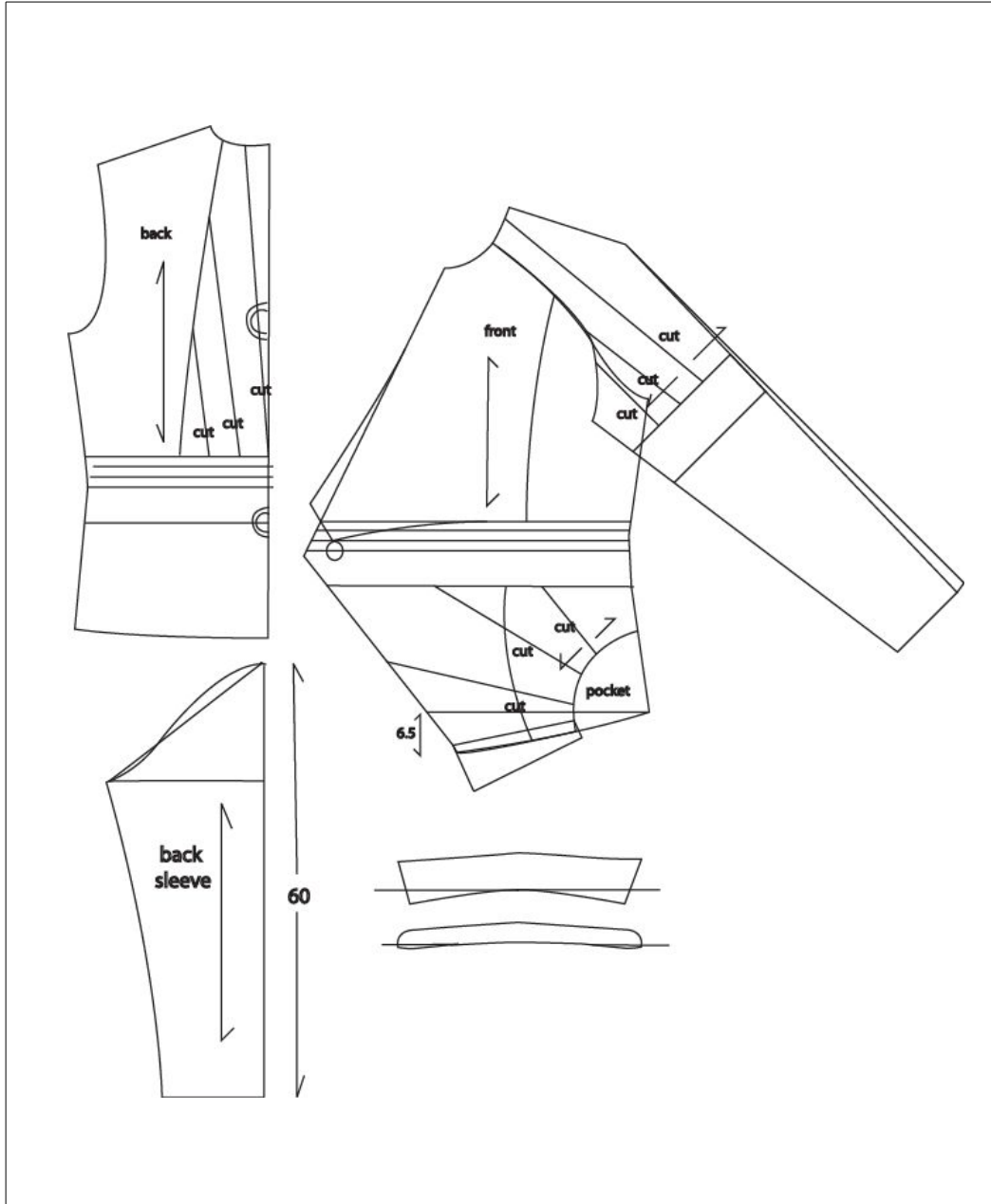
재킷의 여밈과 밑단은 비대칭라인의 사선처리로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였고, 왼쪽 밑단의 경우 주머니의 모양을 위아래가 바뀌도록 뒤집어서 장식효과로 응용하였으며, 셔츠칼라를 밑단의 장식효과로 사용하여 해체적 이미지효과를 주었다.



〈그림 99〉 작품 VIII 의 스타일화

style no.	샘플제작서	의뢰일	완성일	SIZE SPEC	호칭
FW-CJKT003					175 (M)
				가슴둘레	106
				허리둘레	95
				등길이	
				총길이	71
				어깨너비	44
				소매길이	60
				소매둘레	27
				밑단둘레	100
				칼라너비	7.5
				칼라밴드	3
옆목점-어깨점	13.5				
DESIGN				추 가 설 명	
				셔츠칼라 탈부착 (차이나칼라+셔츠칼라) 왼쪽 밑단주머니 상하바뀌어 부착, 안감은 허리봉제 고정	
원단 quality 및 color / 추가 설명 걸감 : 폴리 100% (메모리) 안감 : 레이온 100%				부자재	
				item	size(수량)
				앞스냅	20mm
				칼라단추	12mm(8)
				고무줄	X
				어깨패드	5mm
				밑단줄	X
				후크	X
				칼라단추	12mm(8)
1	2	3	4		
칼라폭 7cm	스티치간격 3mm (소매, 허리벨트)	앞길이 비대칭 6.5cm 연장	허리벨트폭 6.5cm		

〈그림 100〉 작품 VIII 의 작업지시서



〈그림 101〉 작품 VIII 의 패턴 전개



〈그림 102〉 작품 VIII 의 전면



〈그림 103〉 작품 VIII 의 후면



〈그림 104〉 작품 VIII 의 디테일 - 칼라



〈그림 105〉 작품 VIII 의 디테일 - 밑단

9) 작품 IX

(1) 구성 : 코트

(2) 소재 : 겹감 - 캐시미어 100%, 실크 100%, 안감 - 레이온 100%

(3) 디테일 : 맞추름 장식, 라펠장식, 허리다트 장식절개

(4) 상징적 의미를 통한 분류 : 불확정성

(5) 설명 : 작품 IX의 디자인은 패턴에서 사용하는 허리 다트를 응용하여 마름모형의 다트절개를 디자인 장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슬림한 허리라인을 강조하였다.

소매는 래글런 슬리브 패턴을 변형시킨 새로운 형태로 어깨선에 부드러운 곡선이 미지를 주었고, 포켓과 어깨부분에 장식효과로 맞추름을 주어 꽃잎형태 여성적 이미지 효과를 주었다.

라펠과 주머니의 뚜껑부분(flap)은 광택이 있는 실크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라펠은 칼라와 함께 모서리를 둥글게 곡선처리를 하였고, 주머니는 아웃 포켓 형태로 제작하였다. 코트의 밑단의 경우 전체적 디자인에서 오는 곡선효과를 응용하여 광택이 있는 실크소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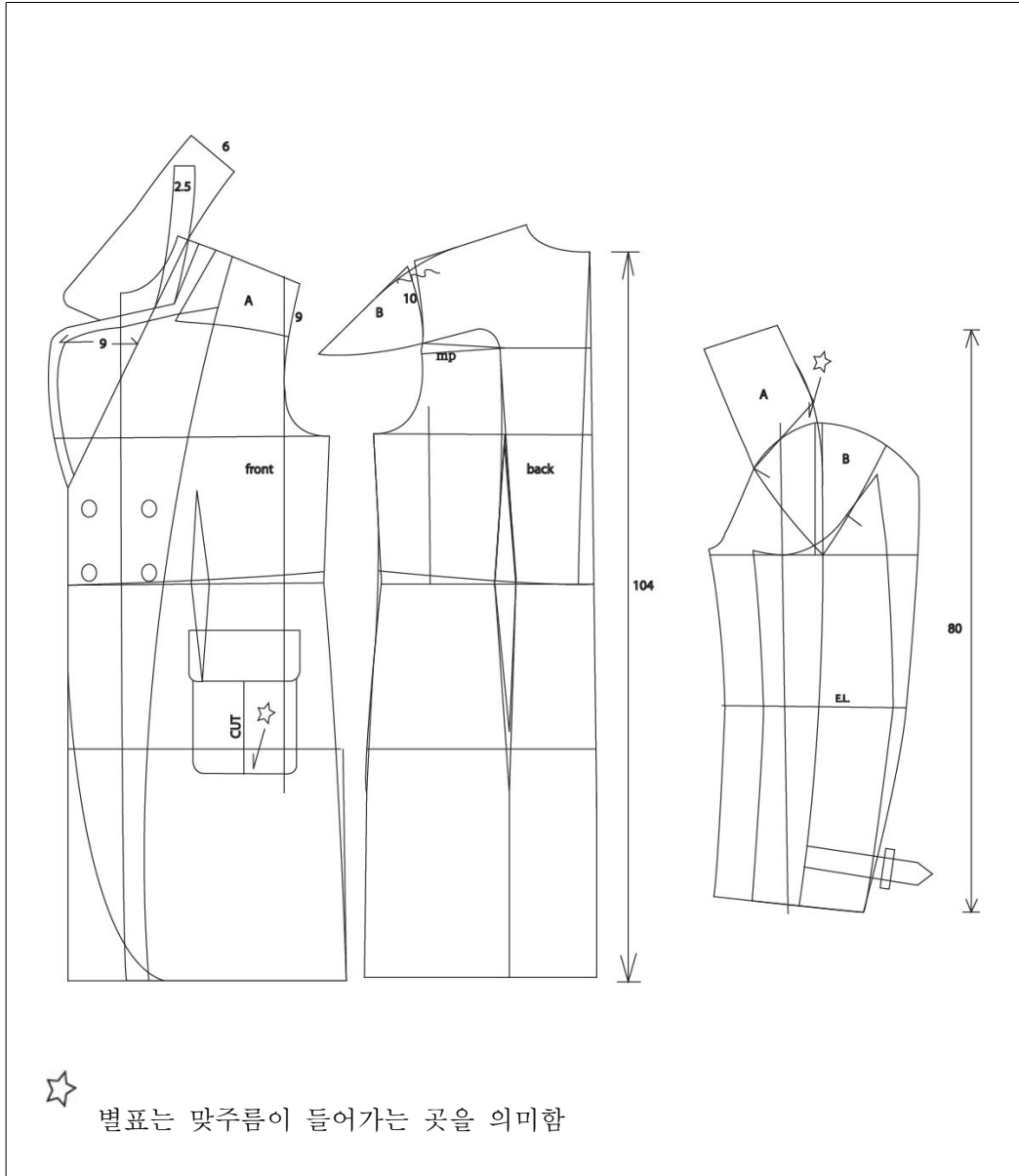
작품 IX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성적인 우아한 실루엣을 응용하였으나, 남성복 자체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여성적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불확정성의 이미지로 완성되었다.



〈그림 106〉 작품 IX 의 스타일화

style no.	샘플제작서	의뢰일	완성일	SIZE	호칭
FW-DBCT001				SPEC	175(M)
DESIGN 				가슴둘레	98
				허리둘레	92
				밑단둘레	
				총길이	104
				어깨너비	
				래글런 소매길이	80
				비조너비	5
				어밌폭	7.5
				칼라너비	8.5
				라펠너비	9
				어깨맞주름위치 : 옆목점에서 14.5cm (주름양 1.5 cm) 더블단추간격: -가로9cm *세로 14.5cm	
원단 quality 및 color / 추가 설명 겉감 - 캐시미어 100% , 실크100% 안감 - 레이온 100%				부자재	
				item	size(수량)
				앞단추	24mm(5)
				소매단추	20mm(2)
				고무줄	X
				어깨패드	8mm
				밑단줄	X
				후크	X
				스냅	X
1	2	3	4		
앞포켓 맞추름	앞포켓사이즈	라펠 덧단폭			
2.5	18 * 15.5	1.8cm			

〈그림 107〉 작품 IX 의 작업지시서



〈그림 108〉 작품 IX 의 패턴 전개



〈그림 109〉 작품 IX 의 전면



〈그림 110〉 작품 IX 의 후면



〈그림 111〉 작품 IX 의 디테일 - 어깨 맞추름

V. 결론

현대 패션에서의 양성성은 양쪽의 성이 의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어 성적 한계성을 벗어나고 있다. 이것은 현대 패션에서 양성적 이미지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의복에서 나타나는 성적 이미지의 변화 양상은 새로운 복합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문화적 흐름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인간의 의복착용은 단순히 성적인 미를 표출함으로써 생리학적 성의 심미적 표현에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에는 의복이 사회적이고 의식적인 관점에서 양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패션에서 양성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여성복 디자인과 달리 남성복 디자인에서는 양성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 남성들은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정보미디어 사회 속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에 따라 그들은 과거 권위적인 권력, 계급, 힘의 상징적 이미지의 남성적 이미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성복에서 나타났던 관능적이고 우아한 아름다움의 미학까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 남성복식의 흐름을 인식하고, 아직까지 소극적으로 양성적 이미지를 적용하는 남성복에 보다 폭넓고 발전된 디자인 영역의 확장된 사고의 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양성성의 개념은 생리학적 개념의 양성성이 아닌 사회적 개념의 양성성으로 제한을 두었으며, 이론적 연구로서 양성성의 특징을 알아보고,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적 관점을 근간으로 한 양성성을 상징적 의미로 분류하였다. 현대 남성복

에서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정성은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의 통합과정을 통해 각각의 성적 특성이 강하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융합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통합성은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특성이 동시에 부각되어 나타난다. 특히, 남성복의 경우 남성복 이미지에 여성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남성적 이미지보다는 여성적 이미지 효과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해체성은 남성복에 여성적 이미지의 디테일을 해체주의적 개념 중 하나인 탈구조적 개념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디자인을 재창조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상징적 의미의 관점을 통하여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의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양성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중문화를 통한 융합적 양성성으로 나타나는 앤드로지너스와 이모스타일이 있으며, 섹슈얼리티적 양성성으로 나타나는 메트로 섹슈얼, 크로스 섹슈얼, 위버 섹슈얼이 있고, 무성화경향 혼합적 양성성으로 나타난 보더리스와 유니섹스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남성복의 양성성을 응용한 디자인 작품은 총 9벌이 제작되었으며, 작품의 구성 품목은 슈트 2벌, 코트 1벌, 캐주얼 재킷 3벌, 원피스 셔츠 1벌, 셔츠 2벌로 다양한 품목에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현대 남성복의 양성성을 응용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남성복의 품목의 제한성을 탈피하여 디자인 영역의 확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여성적 이미지의 디자인이 남성적 이미지에 보다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응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양성성을 상징적 의미의 분류를 통해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나누어 양성적 디자인 요소를 체계화시킬 수 있었다.

넷째,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에 여성적 이미지의 디자인을 접목하여 응용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의 양성적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현대 남성복의 양성적 이미지의 디자인을 발전시켜 독창적이고 다양한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남성복에 여성적 이미지를 그대로 접목하는 단순한 디자인전개에서 벗어난 발전되고 다양한 양성적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색상과 소재에 제한성을 두었기 때문에 색상이나 소재에 있어 디자인 응용을 전개할 수 없었던 점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디자인 연구를 위해서 색상과 소재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개가 가능해야 하겠다.

또한, 보다 긍정적이며 선호도 높은 디자인 개발을 위해, 디자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착장 연구를 통해 심미적 만족도와 의복착용 만족도가 높은 실용적 디자인을 제시하고, 현대 남성복에 보다 발전된 양성성을 가미한 의복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하며 남성복 디자인의 폭넓은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9.
- 권기영, “복식에 나타난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 연구.” 「복식문화연구」, 10(6) (2002), pp. 633~647.
- 권기영, “패션 잡지 광고에서 보여 지는 성 혼돈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 (2004), pp. 100~111.
- 김경아,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less경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8.
- 김경옥 · 금기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 (1998). pp. 239~262.
- 김문숙 · 김현주,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8 (1997), pp. 153~161.
- 김민자. 「복식미학 강의 II(복식미 엮보기)」. 서울: 교문사, 2004.
- 김병옥 · 이상례, “현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Borderless 현상.”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3(5) (2003), pp. 470~480.
- 김성곤,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88.
- 김이은,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 김정연,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 특성.”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 김정원 · 조경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룩의 특징에 관한 연구 -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패션 디자인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응용과학연구원 「응용과

- 학연구지」, 1 (2001), pp. 273~285.
- 남승희, 「나는 미소녀가 좋다」. 서울: 해냄출판사, 2001.
- 다니엘 핑크, 「새로운 미래가 온다 - A Whole New Mind」.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7.
- 매리언 살즈먼, 「남자의 미래」. 이현주 역, 서울: 김영사, 2006.
- 미와 요고 외, 「성의 미학」. 서울: 세종서적, 2006.
- 박수진, “앤드로지너스 룩의 색채 특성 - 1990년대 후반 컬렉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 박주희 · 하지수, “한국과 미국의 Emo Fashion Style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8(2) (2008), pp. 48~61.
- 송명진,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정체성의 표현양상.” 「한국의류학회지」, 25(2), (2001), pp. 327~338.
- 서은희, “남성 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4.
- 유홍식, “20세기 후반 여성복에 나타난 양성 이미지에 관한연구 - 잡지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 유홍식 · 황선진, “패션잡지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의 사회적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II).” 「복식」, 53(5) (2003), pp. 111~124.
- 윤재은, “해체주의 건축의 공간 철학적 의미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7.
- 이명옥, 「꽃미남과 여전사 I - 21세기 남과여」. 서울: 노마드북스, 2006.
- 이민경 · 한명숙, “유니섹스 모드에 나타난 Dualism(이원론)의 현상.” 「복식문화연구」, 3(2) (1995), pp. 277~291.
- 이부영, 「분석심리학:C.G. Jung 의 심성론」. 서울: 일조각, 1998.
- 이정후 · 양숙희, “크로스 드레싱에 관한 연구.” 「복식」, 35 (1997), pp. 111~

134.

책 볼스워, 「기로에 선 남성」. 송경국 · 권영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92.

정부호,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서울: 무한출판사, 2003.

정세희 · 양숙희, “드랙 퀸(drag queen)과 드랙 킹(drag king)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 54(7) (2004), pp. 135~150.

정세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 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정재형, “영화의 양성성(兩性性)개념 연구 :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

조말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줄리아 우드, 「젠더에 갇힌 삶」. 한희정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채금석,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연구 - 시대별 대표적 디자이너와 그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 44 (1999), pp. 37~56.

채수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 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8.

최재천,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서울: 궁리출판, 2003.

플라톤, 「향연-사랑에 관하여」.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한경예, “ISSEY MIYAKE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4.

【 국외 문헌 】

Berdyaev, N., *The Destiny of Man*.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0.

- Bess, A., *Metrosexual: Male who loves clothes and grooming*. St. Louis Post-Dispatch, 2003. 9. 13.
- Calasibetta, C. M.,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2nd ed.* New York: Fairchild Books, 1998.
- Gap, *2005-2006 Autumn & Winter Men's Collections-paris*. 65, Tokyo: Gap Japan Co., Ltd., 2005
- Gap Men Press, *Gap Press Men - 2009 Spring & Summer New York, Tokyo Men's Collections*. 16, Tokyo: Gap Japan Co., Ltd., 2008.
- Gap Men Press, *Gap Press Men - 2010 Autumn & Winter Paris, Milan Men's Collections*. 21, Tokyo: Gap Japan Co., Ltd., 2010.
- L'official, *1,000 Models - Menswear+accessories*, 98, Paris: Jalougallery, September 2009.
- Salzman, M., *The Future of Men: The Rise of the Ubersexual and What He Means for Marketing Toda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 Simon, L.,and Kelly, T., *Everybody Hurts: An Essential Guide to Emo Cultur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7.
- Singer, J., *Androgyny: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England Anchor: Oxford, 1976.
- Sndjio, D., *Rei Kawakubo and Comme des Garsons*. New York: Rizzoli, 1990.
- Uomo 55, *Uomo Collezioni Autumn Winter '06/07*. 55, Modena: Logos publishing S.r.l., 2006.
- Uomo Collezioni, *Spring/summer '08 - Milan, Paris, Florence focus on Pitti*. 61, Modena: Logos Publishing S.r.l., 2007.

【 기타 】

- 김은국, 「치마, 남성도 입고 싶다」... '복장도착' 아닌 '취향'. 한겨레신문, www.hani.co.kr/section-001065, 2003년 12월 29일., 자료검색일 2010. 2. 20.
- 김하형, 「가을, 남성 패션이 화려해진다」. 뷰티지식정보보털 뷰티누리, <http://www.beautynury.com/bnh/newsView.asp?idx=28595&area=T1&zone=main&whr=&keyword=&catA=O&category=&page=5>, 2007년 8월 10일., 자료검색일 2010. 2. 25.
- 김홍희,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월간미술, 1994년 8월.
- 박주연, 「남성들이 섹시해지는 이유 있었네」. 위클리경향,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3364&code=116>, 2006년 12월 19일., 자료검색일 2010. 3. 10.
- 송미숙,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의 문화현상」. 미술세계, 1994년 1월.
- 서울=연합뉴스, 「메트로섹슈얼`시대는 가고 `위버섹슈얼` 시대 도래」.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 2005년 10월 13일., 자료검색일 2010. 3. 14.
- 이선영, 「조형적 성-양성 이미지」. 미술세계, 1999년 10월.
- 이성훈, 「남자가 쇼핑하면 남세우스럽다? 이젠 남자스럽다!」. 조선일보, 2007년 4월 26일.
- 이영욱, 이영욱의 카이스트 사진수업. <http://cafe.naver.com/kaistphoto.cafe>, 자료검색일 2007. 8. 21.
- 이효진, 「도시남, 멋지고 착한 마초로!」. 패션비즈, 2003년 10월.
- 최정아, www.luxury.com, 자료검색일 2010. 3. 9.
-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kr>, 자료검색일 2010. 5. 15.
- 패션채널, 「위버섹슈얼(Ubersexual)이 대세다」. 2005년 12월.
- Artknowledge News, www.artknowledgenews.com, 자료검색일 2010. 4. 2.

GQ, www.gq.com, 자료검색일 2010. 4. 20.

JWT(marketing communication brand). *Bono The Ultimate Ubersexual*, PR Newswire, 2005. 10. 11.

LA Louvre Gallery, www.lalouver.com, 자료검색일 2010. 4. 20.

Lead Fashion, www.leadfashion.com, 자료검색일 2010. 4. 20.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www.lacma.org, 자료검색일 2010. 4. 20.

Mark Simpson, *Here come the mirror men*, The Independent, 1994. 11. 15.

Mark Simpson, www.marksimpson.com/simpsonisms, 자료검색일 2010. 5. 12

Mark Stevens, *Dress Reversal*, New York Magazine, 2003. 11. 17.

New York Magazine, <http://nymag.com>, 자료검색일 2010. 5. 9.

Salon, www.salon.com, 자료검색일 2010. 3. 12.

Scott Schuman, *Are You Ready for Men in Skirts? Because They've Arrived*. http://nymag.com/daily/fashion/2008/07/are_you_ready_for_men_in_skirt_1.html , 자료검색일 2010. 4. 7.

Symbolian, www.symbolian.com, 자료검색일 2010.5. 11.

The Idiot Behind the Iron Mask, www.wanzafran.com, 자료검색일 2010. 4. 22.

The Independent, *Metrosexualman is so over(sorry, Becks). So it's Uber to you, George*. <http://www.independent.co.uk/news/uk/this-britain/metrosexual-man-is-so-over-sorry-becks-so-its-uber-to-you-george-506401.html>, 자료검색일 2010. 3. 22.

UK Vogue, www.style.co.uk , 자료검색일 2010. 3. 10.

Urban Dictionary, www.urbandictionary.com, 자료검색일 2010. 4. 26.

USA Tomorrow News, www.usatomorrownews.com, 자료검색일 2010. 5. 12.

Vogue Menswear Collection-Yoji Yamamoto, www.style.com, 자료 검색일 2010. 5. 1.

Website of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http://www.lacma.ssa.org/art/magritteindex.aspx>, 자료 검색일 2010. 5. 22.

Wikipedia Encyclopedia, <http://commons.wikimedia.org>, 자료검색일 2010. 4. 10.

WTO, www.wto.org, 자료검색일 2010. 5. 13.

Abstract

A Menswear Design Study on Bisexuality in 20th Century of Fashion

Hahn, Soon-young
Departmen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erms of historical aspect, costume had potentially developed in the basis of sexual classification, which means menswear should be mannish and womenswear should be feminine. In the other words, it has been expected as a social phenomenon in cultural.

However, the common notion converts into potentially changeable one. Men is not dithering about showing out their woman-like emotion in public as well as interesting in make-up and clothes which considered as lady-like behavior. The phenomenon is the 20th century's social change instead of limited idealism up to now.

In special, bisexuality of costume in the 20th century is an acceptance of man-like details in womenswear or the acquirement of woman-like details in menswear. Since World War I, womenswear has accepted design and details of menswear which means increase of women's social status. On the other hand, menswear is reluctant to

acquire the design and details from womenswear. In 1960's, the flow of pop culture has influence on menswear accepts the image of womenswear. And a few of men tried to wearing such kinds of clothes at that time.

Bisexuality of menswear has generally developed since the late 1960's. Young generation is interested in mobile phone and internet by computer which make the capacity of cultural information. However the design of menswear does not developed as much as their thoughts.

The study analyzed bisexuality of social viewpoint and examined the fads of bisexuality in 20th century's menswear. So it would be the inspiration of menswear design works.

For the survey of design works, the fads of menswear bisexuality in 20th century are divided into Androgynous, Emo-style, Metro-sexual, Cross-sexual, Uber-sexual, Borderless and Unisex. Those are classified into pop culture of bisexuality, sexuality of bisexuality and sexless-ness of bisexuality.

The inspiration of design works, based on uncertainty, integration and dissolution, and the analysis of feminine details are used for creative design works.

The conclusion of study was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the design works suggest the extension of design work in limited items of menswear.

The second, the design works suggest the possibility of an accommodative bisexuality on the basis of menswear design.

The third, bisexuality of menswear is organized to the

classification of symbolic meaning - uncertainty, integration and dissolution in design.

The fourth, the symbolic meaning and feminine design are acquired the depth analysis of menswear design in bisexuality.

This study suggests the various aspects of bisexuality in menswear design and the possibility of the depth analysis in menswear.

Therefore, it expects to get wide general acceptance in the field of modern menswear.